

# 애기

www.airforce.go.kr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2002. 12

제294호

공군본부

# 2002. 12. 제294호 목차



완벽한 동계 대비태세 확립

|                    |                                   |    |
|--------------------|-----------------------------------|----|
| 지휘봉                |                                   | 3  |
| 공군은 지금             |                                   | 4  |
|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                                   | 7  |
| 칼럼                 | 항공우주기술과 공군의 역할                    | 8  |
| 송년특집/2002년 대한민국 공군 | 공군과 함께 한 2002년 대한민국               | 10 |
|                    | 선진 정예공군을 향한 대도약                   | 12 |
|                    | 새로운 시작, 공군규정·교범 개선                | 14 |
|                    | 2002년, 공군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 16 |
|                    | 하늘 아래 첫 부대, 동계작전 준비 완료!           | 18 |
| 현장탐방               |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F-15K - (3) 무기체계 기술  | 21 |
| 기획연재/철저해부! F-15K   |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2)   | 22 |
| Air Power          | 우주무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 24 |
| 기획연재/항공우주군을 향하여    |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2) - 우주복(1)  | 26 |
| 하늘로! 우주로!          | AC-130H/U Gunship                 | 29 |
| 항공기 열전             | 가끔, 가끔 저리게 생각나는 공군 / 보고 싶다, 전우들아! | 30 |
| I Love Air Force   | 믿음직한 공군, 겨울바람을 녹이다                | 31 |

|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2002년의 꿈★, 이루셨습니까?                 | 32 |
| 추억의 사진 한 장    | 한국전쟁 당시 강릉기지 제설작업(1953)            | 34 |
| Air Focus     | 항공사건과 항공기 사진(1)                    | 35 |
| 문화마당          | 파카소의 눈으로 세상보기                      | 36 |
| 책으로 읽는 세상     | 오, 아름다워라, 비루한 일상이여!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 | 38 |
| 노래의 날개 위에     | 비발디와 바흐                            | 39 |
| 가지극장          | 방 안에 밀폐된 공포, <하얀방>                 | 40 |
| 지구촌 여행        | 신비한 힌두 문화가 서려 있는 네팔                | 41 |
| GAME ALERT    | 비행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 2차 세계대전           | 44 |
| 찾아가자 인터넷      | 공짜의 유혹                             | 47 |
| 생활법률          | 연말연시 술조심!                          | 48 |
| 건강 365일       | 겨울철 감기, 안녕!                        | 49 |
| 기상전망대         | 합박눈이 오는 12월에                       | 50 |
| 마음의 양식        | 정훈(庭訓)                             | 51 |
| 이 달의 역사인물     | 독립인물 장건상(張建相)                      | 52 |
|               | 문화인물 손진태(孫晉泰)                      | 52 |
|               | 호국인물 이태영(李泰榮) 해군중령                 | 52 |
| 장병문예          | 건행 한 봉지의 추억                        | 53 |
| 책읽는 공군인이 아름답다 | Shall we read? 나의 독서법(4)           | 54 |
| 장병문예          | 나의 신병생활기 "괴랑새는 있다"                 | 55 |
| 항공계 소식        | 機內 휴대수하물 엄격 제한 外 3건                | 56 |
| 알립니다          | 공군군악대 정기·순회 연주회 外 2건               | 57 |
| 퀴즈로! 퍼즐로!     |                                    | 58 |
| 영원한 공군인       | 제10대 공군참모총장 故 김성통 장군               | 59 |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최근의 안보정세는 북한의 핵 문제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인 우리 공군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지휘관·참모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불미스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군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부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교육사령관 이·취임식 훈시문 중에서

# R.O.K.



# Air Force

1 2  
3 4  
5 6  
7 8

9 10

- 1 공군본부, 공군 지휘관회의 개최
- 2 작전사령부, 대한민국 헌정회 부대초청
- 3 제3훈련비행단 236비행교육대대, 9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4 제3훈련비행단 217비행교육대대, KT-1 1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5 제16전투비행단 115전투비행대대, 4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6 제17전투비행단, 중부기지 대량 공수지원능력 평가대회 개최
- 7 제11전투비행단, 대테러 진압훈련 실시
- 8 제10전투비행단, 대테러 진압훈련 실시
- 9 제16전투비행단, 공·지 합동훈련 실시
- 10 제8전투비행단, 육군 10야전군 공병부대와 합동으로 교량 피해복구훈련 실시



# R.O.K. Air Force



- 11
- 12 13
- 14 15



- 11 공군사관학교, 첫 여성 전대장 생도(박민경·51기) 탄생
- 12 군수사령부, 항공부품 국산화 견본 전시회 개최
- 13 제19전투비행단, 일본 방위대 생도 부대견학
- 14 제8전투비행단, 모범장병 부모초청행사 실시
- 15 제18전투비행단, 강릉 공군 호국영령 추모제 지원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1

2 3

4 5

- 1 제15훈련비행단, C-130 수송기 이용, 윤석인 수녀 제주도 공수작전 실시
- 2 제3훈련비행단, 장애인 학교 병영체험행사 실시
- 3 제41보급창, 지역 장애인 부대초청행사 실시
- 4 제8785부대, 지역주민 대상 보일러 수리 지원
- 5 제10전투비행단, 어린이 태권도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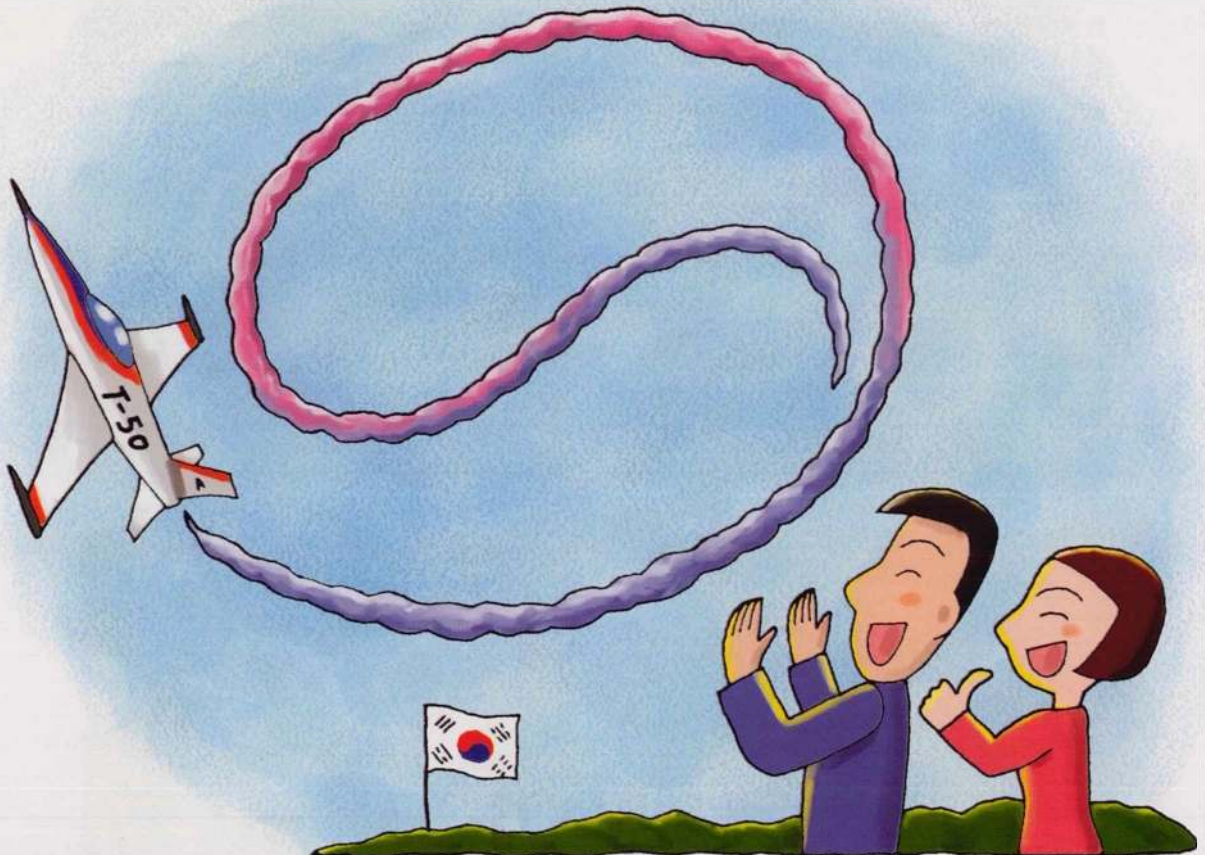
# 항공우주기술과 공군의 역할

세종대학교 세종-록히드마틴 우주항공연구소장 이 경 태 교수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 Golden Eagle의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이 지난 8월 20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성공리에 실시되었다. 이 시험비행은 지난 1997년 10월부터 약 5년간 대한민국 공군의 사업관리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업체 등 그야말로 국내 항공관련 인력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자체 개발한 고유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해 T-50 Golden Eagle의 시험비행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선진국의 대열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T-50 Golden Eagle의 시험비행 성공이라는 기술적 쾌거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항공우주기술과 대한민국 공군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기술개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항공우주기술 역시 공상과학영화의 소재로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





대한민국 공군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전진해나갈 것인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군의 의지와 계획이 바로 미래의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력이며 곧 국력이기 때문이다.

의 질을 제공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항공우주기술 개발도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항공우주기술의 1차적인 수요자가 바로 누구인가? 바로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항공우주기술 및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상 선진 항공우주산업국에서도 방위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우주산업 연간 생산량의 80% 이상이 군수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공군의 의지와 항공우주 전력소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력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1997년 T-50 Golden Eagle의 체계개발 착수에 앞서 1조 4천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그 당시 공군의 소요제기와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쾌거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와 미래의 전장이 과거의 대량 소모전과는 달리 C4I 체계 속에서 첨단 항공우주무기 및 정밀 유도무기체계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 공군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 백 번 모두를 이길 수 있다"는 손자의 말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통하는 불변의 진리이다. 다만, 그 수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첫째가 공군의 의지와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며, 둘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력인 것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 공군이 진정한 의미의 항공우주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전수행 능력 중에는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첨단 중의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가 한 둘이 아니다. 초음속 항공기인 T-50의 비행시험 성공이 단시일에 이룩한 놀라운 쾌거임에는 틀림없으나, 향후 항공우주군으로서 대한민국 공군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능력에 비교한다면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항공우주력 건설을 남에게 계속 의지할 수만은 없다. 공군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력확보 계획과 현명하면서도 의지가 실린 투자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대한민국 공군에게 국내의 항공우주기술 개발과 산업을 책임지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비전 달성과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열쇠는 대한민국 공군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막 T-50 Golden Eagle 사업수행을 통하여 일단 기술적 쾌거라는 절반의 성취를 달성한 수천 명의 항공우주 기술인력과 연구인력들은 대한민국 공군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전진해나갈 것인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군의 의지와 계획이 바로 미래의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력이며 곧 국력이다. 동시에 수천 명의 항공우주 관련 종사자들과 이들의 뒤를 이을 미래의 수천, 수만 항공우주 기술인력들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 Ⓢ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군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올 한 해의 훈련과 경험들이 초석이 되어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인 공군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확신하며, 더 나아가 힘차게 전진하는 2003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군과 함께 한 2002년 대한민국

작전사령부 전구항공통제본부 대령 김 명 호

한국전쟁시 유엔군 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In war there can be no substitute for victory"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은 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공군, 국가안보의 핵심전력

현대전에 있어 공군력의 중요성은 그 위상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유사시 즉각적으로 공군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비록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막대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은 현대의 여러 전사(戰史)들이 증명하고 있다. 즉, 전쟁 역지력으로서의 공군력의 적절한 운용은 국가적 차원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군 작전사령부는 항공전력 운영의 최고 부대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며, 전력운영 최일선 부서인 전구항공통제본부 또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전구항공통제본부는 전력을 운영·통제하기 위해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긴장감이 넘치는 매순간마다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과 전술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타군과는 비교하기 힘든 신속한 전술조치는 결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다. 조그마한 실수일지라도 그것은 자칫 공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태로 비화되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002년, 공군이 있어 든든했다!

올해는 유달리 국가적 대행사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다. 각종 작전훈련 이외에도 4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일 월드컵, 북한의 참여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아시안게임 및 선거와 관련한 대규모 대비태세 유지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또한 일촉즉발의 위기로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던 서해교전 역시 공군의 완벽한 영공방위태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해에서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강릉지역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지원, 벽오지 인명구조를 위해 촌각을 다투며 임무를 수행해온 수습 차례의 환자공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공군력의 적절한 운용은 국가적 차원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호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공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한 40여 회의 회의 물자공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한 해이기도 했다.

#### 실질적 훈련을 통한 최고의 전비태세 유지

특히 올해는 지휘관의 지대한 관심으로 실질적인 한·미 연합전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UFL과 RSOI 훈련이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게 진행되었다. 또한 육·해군과의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호국훈련 및 화랑훈련 역시 예년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사령부급의 전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미7공군 자체 훈련에 우리측 참모진들이 동참하여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훈련참관을 통해 우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군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중간 관리자, 일선 조종사, 그리고 지원요원들의 헌신과 일치된 단결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올 한 해의 훈련과 경험들이 초석이 되어 국가 방위의 핵심전력인 공군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확신하며, 더 나아가 힘차게 전진하는 2003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F-15K 전투기사업의 최종 목적은 막강한 전력 확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빈틈 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F-15K 관련 기술이전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현실에 필요한 F-15K 전투기를 적기전력화하기 위한 전 공군인들의 힘과 의지를 모으는 일이다.

## 선진 정예공군을 향한 대도약

- 2002년 전력증강사업을 돌아보며 -

공군본부 전력계획처 대령 김 영 민

2002년 임오년 한 해 동안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을 향한 여러 가지 전력증강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T-50 고등훈련기의 성공적인 초도비행은 창군 53주년, 반세기가 넘는 공군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긋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 한 해 전력증강사업의 백미는 F-15K 전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15K 전투기사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총 5조 6천여 억원을 투자하여 40대의 최신에 F-15K 전투기를 확보하는 역대 국방투자사업 중 가장 대규모의 사업이다.

### 전쟁억제를 위한 최강의 전력 확보

전투기 수명을 30년 정도로 고려할 때 우리 공군이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150여 대 규모의 신규 전투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공군은 1960년대 미국 군사원조로 도입한 F-5A/B, 60년대 말~70년대 초에 도입한 F-4D, 주력기인 KF-16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종 중 20%는 노후화로 인해 2000년부터 도태되기 시작하여 2009년도가 되면 전투기 보유대수가 적정수준 이하로 감소, 전력운용상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전투기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며, F-15K 전투기사업은 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F-15K 전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대상기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여타 투자사업보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진행된 차기전투기사업은 14년 전인 1988년, 전 공군인의 염원을 모아 미래 한반도 주변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요 제기되어 지난 4월 F-15K 전투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현재는 차기전투기사업 관리를 위해 미국 생산 공장에 파견되어 적기 전력화를 추진할 사업관리 요원들을 선발·교육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본 궤도에 오른 F-15K 전투기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과거 선진국의 점유물로만 여겨졌던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최신에 전투기 확보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 완벽한 시험평가, 치밀한 기술협상

차기전투기 기종선정 과정에서 우리 공군은 4개 대상기종에 대하여 우리의 사용목적에 맞도

록 시험평가계획을 수립, 4개월에 걸쳐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하여 일일이 대상기종의 성능과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였다. 또한 실제 비행운영과 지상지원 시범을 통하여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투용 사용 가·부를 정확히 판단해 내었다. 결국 공군의 시험평가는 해당 기종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가장 수준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험평가와 병행하여 진행된 기술협상에 서도 공군은 꺾대기뿐이 아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 완비된 조건으로 차기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군 이외에도 조달본부가 수행한 가격협상,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이전협상, 국방연구원의 기종결정 평가요소 및 배점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문회와 설문조사 등이 유기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기종결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 최종 목적은 안전보장·국익증진

공군은 효율적인 전력운용을 위해 보유 전투기의 성능에 따라 통상적으로 High-Medium-Low 급으로 분류하여 운용한다. F-15K 전투기는 High급 전투기로 주변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에 전투기와 질적으로 대등하거나 우세한 성능을 갖추어 평시억제전력으로 기능하며, 유사시에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영공방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능(공대공·공대지/해)을 보유,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주·야간/악천후 상황에서도 공중전 및 지역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

F-15K 전투기사업의 최종 목적은 이와 같은 막강한 전력 확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

고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빈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F-15K 관련 기술이전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현실에 필요한 F-15K 전투기를 적기전력화하기 위한 전 공군인들의 힘과 의지를 모으는 일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④





## 새로운 시작, 공군규정·교범 개선

공군규정·교범 개선위원회 대령 심우섭

최근 미 육군 주간지에 의하면, 육군장병들은 '규정 670-1 육군제복, 계급장 표시 및 착용' 개정으로 보다 많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개인용모분야를 살펴보면 자연적인 경우와 삭발의 경우 대머리 허용, 머리 따기·흑인의 경우 꼬기 허용, 여성의 경우 단정한 머리 길게 늘어 뜨리기 허용, 자연스런 색깔에 의한 손톱 매니큐어 채색 및 가짜 손톱 부착 등이다. 이는 군인의 외형적 일체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스타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개성의 표현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대변화를 군이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그 동안 우리 군도 부대별 나름대로 규정·교범 등 임무수행절차에 대한 정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서·기능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비능률적인 임무수행체계가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과 국방부의 '국방 업무체계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참모총장 지휘지침인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군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정·교범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금년 1월에 설치된 「공군규정·교범 개선위원회」는 11월 현재까지 규정·교범체계 정립, 503건의 규정·교범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관련 정보체계 개선 등 개선활동 기반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선활동 주체로서의 각 부감실은 제시된 개선방향을 근거로 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 실시간 규정·교범 정보체계 구축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군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교범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공군의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과업(Task)을 재정의하고, 이를 주과업, 세부과업, 활동으로 분류하여 규정·교범체계에 연결하였다.

둘째, 간단(Simple)하고 명확(Smart)한 임무수행절차 발전을 위해 규정·교범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임무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과업은 규정을 신규 제정하고, 과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규정은 통폐합하도록 했다.

셋째, 공군규정·교범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개선된 규정·교범 정보체계는 공군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교범, 서식, 지침서 등을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결하여 빠르고(Direct), 쉽게(Easy)

| 구 분  | 주요 개선방향   |
|------|---|
| 기획관리 | 〈정책의 질 향상〉 : 정책기획/계획 프로세스 재정립, 대 국회업무 규정화, 군사의료업무 개정, 계획계수 및 기준 관리체계 정립 등   |
| 인사복지 | 〈삶의 질 향상〉 : 6대 관심분야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쉬고, 배우고'에 대한 개인포털체계(Single Window System) 운영, 각종 위원회 활동과 장병선발 관련 절차 간소화, 신분별 세부업무절차 교범화 추진, 회의의 효율화 등 |
| 정보작전 | 〈합동성 제고〉 : 합동작전차원의 정보지원 기술, 군사자료관리체계 개선, 기지방호작전 절차 발전, '하나의 전구, 하나의 예보' 원칙하 전군적인 기상지원, 공군작전/위기조치 예규 정비 등                                    |
| 군수지원 | 〈신속·정확한 군수지원〉 : 재산처리 절차 간소화, '조달관리' 교범 제정, 기지조달 전자상거래 Pilot Project 시행, 사용자 중심의 보급 관리 절차 기술, 정비활동 및 탄약 관련 절차 간소화, 수송체계 및 지휘관계 재설정 등         |
| 지휘통신 | 〈고객만족서비스 추진〉 : 사용자 중심(Pull 개념)의 정보체계 발전, '통신전자관리' 규정 제정, 국방부/타군과의 연계성 고려 전산업무와 정보체계간 개념 재정립 등   |
| 감 찰  | 〈혁신 촉진형 평가〉 : 업무개선/성과중심형 검열의 발전, 부대훈련 체계/전투검열/표준화 및 평가 업무간 연계성 확립 등   |
| 교육훈련 | 〈작계 시행 보장〉 부대훈련 절차 개선 및 관련규정 제정, 교육운영 프로세스 정립, 교육시행계획서 작성절차 및 시기 조정 등   |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간행물 회보'는 규정 제·개정(폐기)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규정검색'은 해당 규정을 열람하면서 연관된 규정, 교범 지침서 확인 및 참조를, '상위법령 검색'은 국가법령, 국방부/합참규정 등을, '보안자료검색'은 보안업무명칭으로 관련절차 및 자료확인을, '용어사전'에는 35,980개의 용어와 11,000개의 약어를 담고 있으며, 특히 2,718개의 용어는 업무절차와 연결되어 있다. '규정 개선방향'은 규정 개선방향 종합, 부서별 규정 정비 추진현황을, '제언마당'은 수시로 규정, 교범의 개정 소요 제기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세기 신국방을 선도하는 공군

이러한 공군의 규정·교범 개선을 업무재설계(BPR)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3년도까지 각 부감실은 분야별 규정·교범 정비를 추

진하고, 개선위원회는 부감실 제·개정안 검토, 핵심업무프로세스 개선지침 제시, 그리고 규정·교범 정보체계 단일화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개선업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 자체는 물론 이 일을 해 나가는 모든 공군인의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군인의 진정한 신뢰감, 실제적인 협동심 고취 및 하는 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을 추진하는 업무분위가 조성되어, 참모총장 지휘지침인 '규정과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군육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또한 21세기 신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에서 추진 중인 '국방업무체계 통합기반 구축'과 '합리적인 국방운영의 효율성·경제성 증대'에 공군이 3군 중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 F-15K 전투기사업 성공적 추진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차기전투기사업 기종선정이 지난 4월 F-15K로 최종 결정되면서 21세기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이 지난 8월 역사적인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계적으로 자체개발한 고유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하다. 지난 1997년부터 개발에 들어간 T-50은 F-16, F-15, F-22, 라팔 등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한 고등훈련기로 설계되었으며 경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2002년, 공군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 편집실

있는 전략형 공군 건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오는 2009년까지 5조 6천여 억원이 투자되는 F-15K 전투기사업은 우리의 영공방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림과 동시에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물론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산 초음속 항공기 시대 개막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Golden Eagle

### 최초 여성 전투기·수송기 조종사 탄생



지난 9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전투기·수송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혹독한 군사훈련과 비행훈련을 이겨낸 5명의 여성 조종사들은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남성 조종사들 못지 않은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여성 조종사의 탄생으로 공군의 선도적인 여성인력정책이 또 한 번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 국가적 대행사 성공적 지원

올 한해 공군은 9.11 테러 이후 고조된 국내의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비롯한 국가적 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

특히 공중테러와 생화학테러 등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군사대비태세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 항공우주군 기반 조성



공군은 올 한 해 미래지향적인 공군력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끌어 냈다. 미래전을 대비한 교리 및 부대구조 개선·발전 및 전략형 공군 건설을 위한 전력확

충, KAIST와의 학·군 제휴를 통한 항공우주기술 개발,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 해외 에어쇼 참가 등을 통해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의 비전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 IT 공군 본격화

2002년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군의 임무수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199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인트라넷 문서



관리는 물론이고 각종 행정처리, 정보전파, 교육, 멀티미디어 기록물 관리, 규정·규범·법령 상담/조회, 다양한 최신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부대간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모병 및 각종 대외 민원업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되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멋진 공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기본이 바로 선 공군인 육성'이 공군 내부를 향한 목소리라면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은 국민의 군대인 공군의 위상을 대변하는 '2002년 공군의 대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국민참여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다면 인명구조, 재해·재난복구, 의료지원, 자원봉사,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땀흘리고 어려움을 나누는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악의 수해를 겪은 올해, 복구현장에는 어김없이 공군장병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

# 하늘 아래 첫 부대, 동계작전 준비 완료!

철벽성공 제8785부대

VS

실발필추 제8217부대



## 날아가는 새도 놓치지 않는다!

단풍이 빨강계 물들어 단풍관광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는 10월. 그러나 이때부터 흰 눈을 맞이하는 부대가 있다. 공군 제8785부대가 바로 그곳. 24시간 대한민국 영공을 감시하는 임무특성상 대부분의 부대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8785부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하늘 아래 첫 부대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여진 것.

최대 일일 강설량이 1,354mm에 이르는 8785부대는 그로 인해 작전수행에 어려움도 뒤따른다. 교대근무로 운영되는 관제중대의 경우 밤새 눈이 오는 날 근무지까지 삼으로 눈을 퍼서 이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눈이 속속출입문 위까지 쌓여 문을 열고 나오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혹한으로 인해 방공관제작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365일 24시간 영공방위를 위해 8785부대의 월동준비는 이미 9월

부터 시작된다.

폭설로 인한 고립상황에 대비하여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겨울철 화재에 대비한 각종 소방장비 점검, 혹한에 대비한 보일러 보수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산꼭대기 부대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인 작전도로의 '사수' 또한 필수적인 일이다. 좁은 산길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걸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내리는 눈이 '쌓일 틈도 없이' 재빨리 치우는 것이 관건이다. 추가

월부터 제설작업을 위한 각종 장비 점검은 물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정확한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전부대원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레이더 돔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 등에 새끼줄을 감아 놓는 것 또한 산꼭대기 부대만의 이색적인 월동준비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자칫 쇠난간을 잡은 손이 난간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계기간 중 장병들의 건강. 체감온도가 겨울철 평균 영하 25, 최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부대특성상 장병들이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한 대비로 겨울에 동상에 걸리는 장병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극한의 온도로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활기찬 여가를 보내기 위해 헬스장, 당구장을 갖추고 있으며 태권도 수련을 위한 눈꽃 체육관은 이 부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 날아가는 새도 맞춘다!

하늘과 거의 맞닿은 곳, 일부 고산지역의 식물을 제외하고는 생명의 기운조차 없을 듯한 산 정상에는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맑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 제8217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의 겨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최악의 조건으로 겨울나기는 3포대 장병들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평균 기온 영하 14.2도,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기온은 영하 4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혹한과 폭설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부대를 최상의 상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동계작전이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혹독한 추위와 폭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모든 장병들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소를 지키는 초병의 눈매는 살을 에는 듯한 바람보다 더 매섭게 빛났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겨울에 온수로 세수하고 따뜻한 내무실에서 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곳 8217부대는 고지대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온수가 나오며 내무실 온도는 항상 18°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을을 한참 느낄 9월부터 이곳에서는 동계혹



한과 폭설대비 준비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 들어도 작전수행과,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고립상황, 장병들의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동계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동계일과 중 가장 힘든 것은 경계근무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체감온도와 바람, 결빙으로 인해 조그마한 실수면 바로 낙상이라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환경에서의 경계근무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혹독한 추위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해 주는 방한복과 함께 단계별 복장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젠'이 보급되어 있다.⚡



## 철벽성공 제8785부대 VS 실밭필촉 제8217부대

### 병장 류선종

**술**

해가 이 부대에서의 마지막 겨울이다. 처음 부대 배치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높은 산과 추위에 지레 겁을 먹었다. 그러나 부대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니 색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도 생겼다. 특히 동료들과 눈으로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을 때의 느낌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전투체련때 타게 되는 눈썰매는 우리 부대가 아니라면 경험하지 못할 또 다른 재미이다. 100% 천연 무공해 눈 위에서 달리는 눈썰매. 군에서의 추억이 그리울 것 같다.

### 일병 강우현

**북**

대워서 맞는 첫 번째 겨울이다.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선임병들의 말을 들으니 상상 이상의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겨울나는 법을 여러모로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믿음직한 선임들을 보니 그다지 겁이 나진 않는다. 매년 12월에 있는 우리 부대 축제인 '마가목제'가 군생활의 또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몹시 기다려진다. 모든 부대원들의 이름을 다 알고 지낼 정도로 가족 같은 우리부대 분위기가 추위도 녹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8785부대 파이팅!

### 병장 조찬식

**군**

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스키장 가 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거의 프로수준이다. 군대에 와서 전투체련을 이용해 스키도 배우고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다. 그리고 겨울에 피는 눈꽃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땔 수 없을 정도이다. 이곳의 자연환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관이라 평생 제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다.

### 이병 이효진

**시**

곳에 온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맞는 이곳의 겨울에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가족같이 보살펴주는 부대원들이 있기에 아무 문제없이 젊은 패기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항상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공군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진정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F-15K

## (3) 무기체계 기술

항공사업단 전투기사업처

1. 구조설계 기술
2. 임무체계 기술
3. 무기체계 기술



무기체계 관련 기술은 5가지로 구분된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도무기기술에는 군사용 정밀 GPS 항법자료를 이용하여 고정밀 스마트탄 공격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합동정밀공격폭탄(JDAM :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바람수정 확산탄(WCMD : Wind Corrected Munitions Dispenser) 및 합동원격유도탄(JSOW : Joint Stand Off Weapons)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향후 개량될 각종 항공무기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MIL-STD-1760을 적용하였다. 이와 연동되는 15개의 무장장착대에도 GPS 기술을 이용하여 주·야간/전천후 정밀공

격이 가능한 기술들을 적용하였다.

결프전의 경우 악천후 상황하에서는 정밀유도탄의 공격능력이 제한되었으나, F-15K에 장착할 JDAM, JSOW 기술은 악천후 상황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AIM-9X 미사일은 근거리 공중요격용 열추적 미사일로서 근접 공중전투에서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며,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자동조준장치(JHMCS)와 연동되어 Off-Boresight 공격이 가능하며, 항공기의 기동 없이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므로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시간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Harpoon Block II(AGM-84) 기술은 가장 최신의 공대지/함 미사일로서 GPS 유도장치를 이용하여 장거리 육지, 해안 및 해상 표적에 대해 정확한 공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SLAM-ER(Stand-Off Land Attack Missile-Extended Response)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로서 GPS 및 영상, 적외선 유도장치를 이용하여 장거리 전락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사된 미사일을 항공기에서 원격조종함으로써 이동 중인 표적에 대해서도 명중률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이 F-15K 전투기는 현재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첨단기술들을 적용하여 F-15E에 장착되지 않은 한국공군 고유 형상의 최신 첨단무기체계 및 전자전 장비를 장착함으로써 한국전장 및 미래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미 공군 교리 2-5

## 정보 작전 (Information Opera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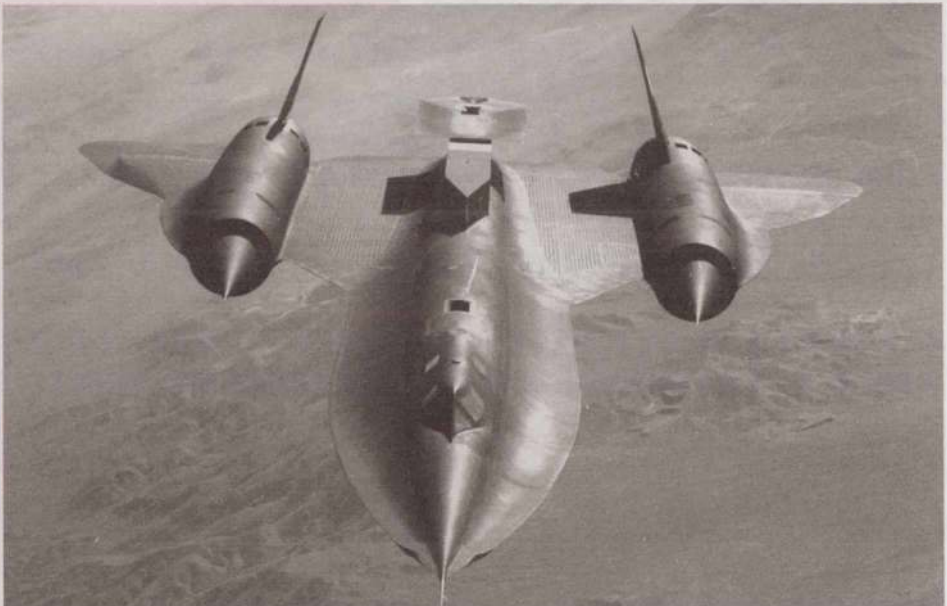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본 교리는 정보작전을 통해 정보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측면의 관점을 설명하고, 항공우주 정보작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업무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1. 전략공격
2. 우주 작전(Space Operation)
3. 제지(counter land) 작전
4. 정보 작전

## 정보기반전(Information-In-Warfare)

정보기반전은 정보작전의 획득과 활용 기능에 중점을 둔다. 정보기반전이란 지속적으로 지휘관에게 전 분쟁영역에 걸친 상황인식을 제공하도록 계획된 항공우주력 기능의 범위를 말한다. 정보기반전에서는 위기시 또는 분쟁시 주야를 막론하고 정보제압작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항공우주작전을 지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으로 정보제압활동 또는 기타 항공우주작전이 정보기반전 활동의 성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정보, 감시 및 정찰(ISR), 정밀항법 및 표적정보, 기상정보, 정보수집 및 전파활동, 그리고 공보작전을 비롯한 주요 정보기반전 기능들은 공중, 우주 및 기타 정보작전의 운용능력을 신장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기능들은 지휘관





**정보기반전이란 지속적으로  
지휘관에게 전 분쟁영역에 걸친  
상황인식을 제공하도록 계획된  
항공우주력 기능의 범위를 말한다.**

에게 전체 전장의 관측, 사건분석 및 인식보전능력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감시 및 정찰(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은 임무, 수집, 처리, 활용의 통합된 능력을 통하여 정확하고 적시적인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공군이 운영하는 ISR 자산은 거의 범세계적인 센서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 지휘관은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적의 강점에 대응하고 적의 약점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모든 항공우주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ISR 작전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필수적이다.

정밀항법 및 표적정보(PNP : Precision Navigation and Positioning)는 민감한 지역의 표적을 정밀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표적

위치 확인과 그 후의 정확한 물리적 공격은 표적의 무력화 또는 파괴에 필요한 항공기 출격횟수를 크게 줄여준다. 또한 적 위협지역의 정확한 좌표를 제공함으로써 ISR, 심리작전, 전자전 등의 정보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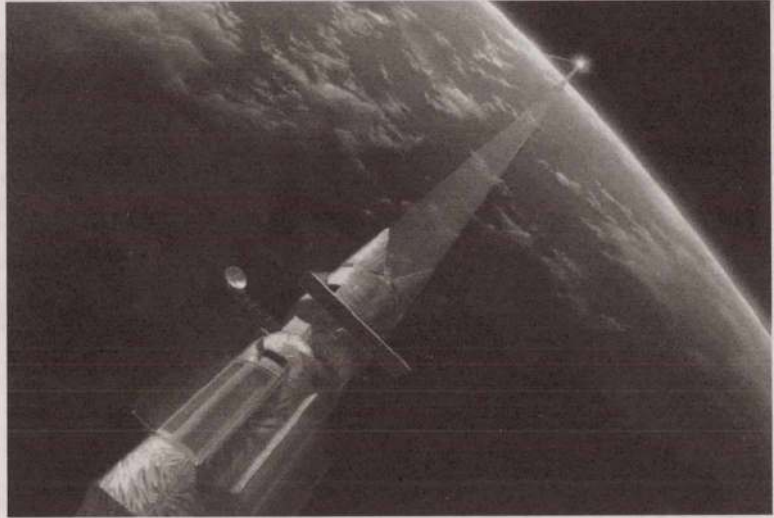
기상(Weather Services)은 항공우주력의 기본 기능으로서 전투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중 및 우주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 정보는 전력운용 및 공중, 지상, 해상, 우주작전의 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공중과 우주환경의 효과를 아는 것,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공보작전은 정보제압작전 범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지원하는 능력 외에 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지원하는 분쟁의 전 양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지휘관은 공군과 국내외의 단체에 항공우주력 활동에 대한 평문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해 공보작전을 사용해야 한다. 공보작전은 분쟁의 전 양상에서 4가지 유형 - 신뢰할 만한 조언, 병사들의 사기와 준비태세 향상, 부대의 단결과 자긍심 향상, 대중신뢰 구축 - 으로 지휘관을 지원할 수 있다. Ⓢ

# 우주무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장영근

1. 우주무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2. 대 탄도탄 요격무기
3. 대 위성 요격무기



1957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 위성 발사와 함께 우주시대의 개막 이후 지상전과 연계하여 우주무기는 그동안 여러 번 조명을 받아 왔다. 첫 번째는 냉전 초기에 원자핵 무기를 탑재하는 '폭격위성'의 가능성으로서, 두 번째는 냉전 말기에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우주기반 방어전략으로서, 그리고 동서 냉전체재의 붕괴 이후 현재까지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주무기의 전개 및 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계획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우주무기의 종류, 특성 및 개발 현황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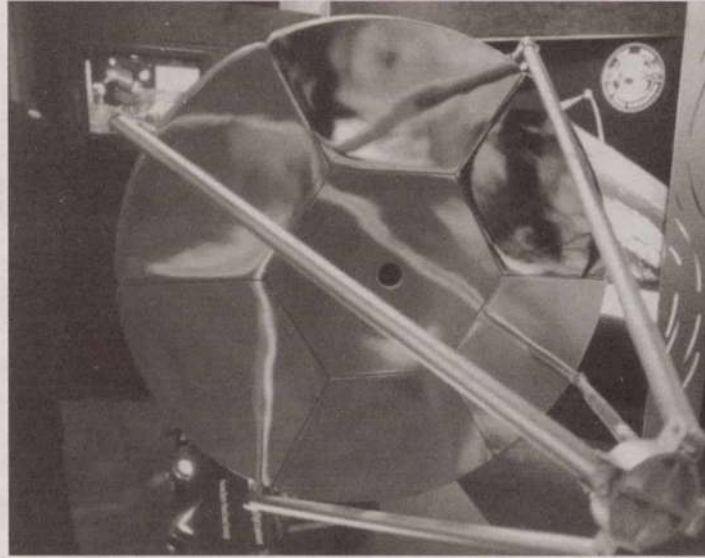
21세기 무기체계에 관한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우주무기의 개발 및 배치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우주 강대국 사이에서는 우주궤도에 살상용 무

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동의가 있어 왔으며,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정찰, 도청, 항행 및 통신위성 등에 제한되어 왔다. 냉전 중에도 미·소의 두 강대국은 공격적인 우주무기의 배치에 서로의 눈치를 보아 왔다. 1972년에는 반 탄도미사일 조약(ABM ;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에 서명하였으나, 실제로 우주무기 개발을 위한 수많은 실험을 수행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ABM 조약에 상관없이 미국이 우주무기를 배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다.

현재까지는 우주시스템은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15년 내에 우주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주의 군사화는 이미 상당한 진행단계에 있으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주의 무기화가 적어도 조만간 또는 중·단기간 내에



자국의 우주전력을 보호·유지하고  
 비상시 적 우주전력을 파괴,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주무기 연구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같은 일부 무기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성능개량이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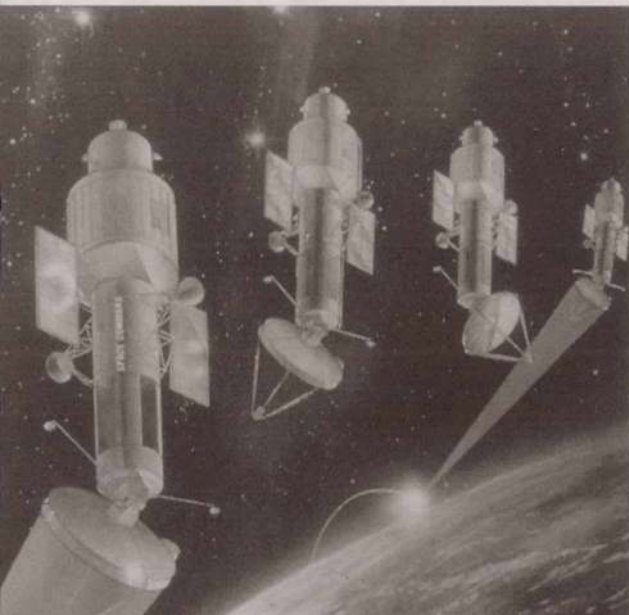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즉, 자국의 우주전력을 보호·유지하고 비상시 적 우주전력을 파괴,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주무기 연구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같은 일부 무기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성능개량이 진행 중에 있다.

미 국방성은 향후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두 종류의 무기를 연구 중이다. 이 중 하나는 미사일과 충돌해서 파괴하는 '파괴 비행체'가 포함되는 운동성 에너지 무기이며, 다른 하나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 레이저 등과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이다.

미 공군은 2001년 1월 콜로라도주의 슈리버 공군기지에서도 우주공간에서의 위(war) 게임을 최초로 실시했다. 2017년으로 가상 설정된 이 위 게임에서는 적색으로 표시되는 우주전쟁 수행능력 준(準)보유국과, 갈색으로 표시되는 소규모 주변국가간의 가상전쟁이었다. 갈색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초강대국은 우주선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위성 공격용 레이저, 마이크로 위성, 지상 레이저, 첨단 관측 및 통신위성을 갖추고 우주전쟁을 수행한다. 국방성 장교들은 예상대로 미국이 미래에 적색국가들을 막아내기 위해 우주무기 체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는 2003년 2월로 계획된 위게임에서는 15~18년 후에 나올 수 있는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무기들은 우주에 설치되는 레이더와 미사일 격추 무기, 재사용 가능한 발사 시스템 등 보다 발전된 전쟁장비들이다. 1주일도 소요되는 이 위 게임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모든 무장장비들이 전투계획에 맞춰 우주시스템에 통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 호부터는 현재 구상 중이거나 개발 중인 우주무기를 크게 대 탄도탄 요격무기와 대 위성 요격무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2)

# 우주복(1)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우주무기담당

### 우주복과 우주환경

우주복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공간에서 인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특수한 옷으로 우주공간에서는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건널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입는다.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다른 환경으로 되어 있다. 대기압이 작용하지 않고 산소가 없는, 그리고 태양열에 의한 극고온과 극저온의 환경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또한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우주먼지와 각종 전자파 및 방사능 등이 우주비행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가 우주선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첨단 우주복을 입어야만 한다. 물론 우주선 안에서는 우주선 자체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주복 없이도 활동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대기는 20%의 산소와 80%의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해발 5.5km 고도의 대기는 지상의 대기에 비해 공기밀도가 약 50%에 불과하고, 12km가 되면 공기층이 너무 얇아져서 압축 산소마스크도 더 이상 제기능을 못한다. 고도가 19km 이상이 되면 몸 속의 체액을 액체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압력이 인공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공기압력이 너무 낮아 몸 속에 있는 체액이 끓어 넘칠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9천m만 올라가도 질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 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특수장치가 필요하다. 2만m 정도 올라가면 대기압이 줄어 세포에서 기포가 생기며 혈액은 끓어 오른다. 4만m가 되면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선(COSMIC RAY)으로부터 인체 조직을 보호해 줄 질소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우주복의 기능

우주복은 우주복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산소공급과 이산화탄소의 제거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선외활동을 하는 우주비행사와 우주선 사이의 통신연락이 가능해야 하고 선외활동을 하는 우주비행사의 생리활동 자동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물론 우주복 착용 상태에서의 작업동작이 쉬우면서도 쾌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성진·우주선·자의선·태양복사 등의 극단적인 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우주선으로부터의 독립성 역시 높아야 한다.

우주왕복선용 우주복은 약 29kpa(0.3기압) 정도의 압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우주복 속에는 20%가 아닌 100% 산소가 들어 있는데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이 출발하기 몇 시간 전부터 순수한 산소를 호흡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몸 속에 녹아 있는 질소가 없어져야만 압력이 감소했을 때 이것이 가스방울로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복은 우주공간의 극단적인 온도변화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하게 된다. 실제로 우주공간은 태양빛을 흡수하는 대기층이 없어 태양빛이 닿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약 120도의 고온과 영하 120도의 극저온을 나타낸다. 우주복은 이러한 온도변화의 폭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우주복의 구조

우주복은 우주비행사들의 활동영역과 임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작된다. 우주왕복선을 위한 우주복은 최소 8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달여행 때와는 달리 진공과 거의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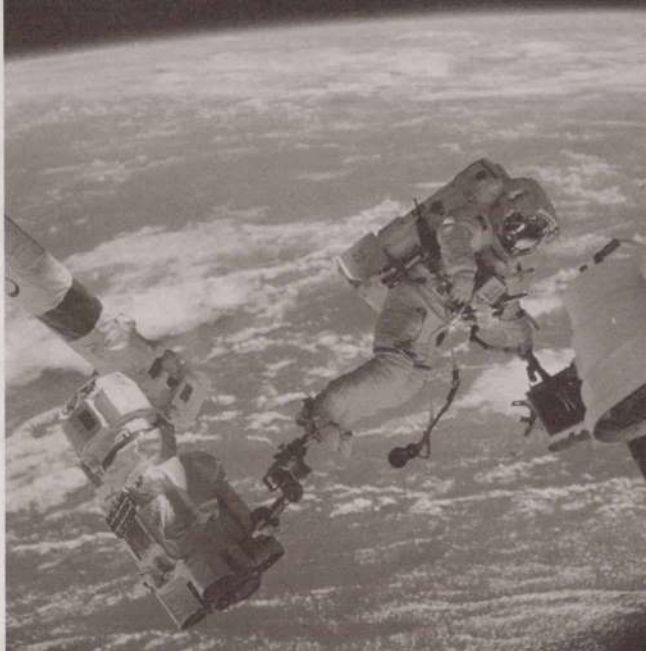
우주복은 여러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직물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만들어진다. 우주인의 피부에 가장 가까운 안쪽 2개층은 신축성이 있는 합성섬유(스판텍스)로 국수가닥과 같이 생긴 플라스틱 튜브(약 92cm)를 통해 냉각수를 흐르게 하여 우주비행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우주비행사들은 또 우주복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냉각수가 흐르는 속옷을 입게 된다.

그 다음은 공기를 담고 있는 우레탄층과 공기가 부풀어오르지 않도록 막는 테이크론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테이크론층은 우주복이 급격한 기압의 변화에서도 터지지 않도록 특수 합성섬유를 이용해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나머지 7개의 층은 단열기능과 우주먼지, 각종 전자파나 방사능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우주복의 단면을 보면, 단열을 위한 알루미늄 코팅 특수섬유가 5개 층으로 돼 있고, 4개층의 폴리에스터 부직포층이 있다. 또 그 위에 단열과 마모방지를 위한 2개층의 폴리amide 섬유층과 테프론이 코팅된 직물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바깥층은 하얀 테프론 직물로 열과 추위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하고 압력을 유지시켜 준다. 또 작은 유성체와 충돌하거나 달표면을 걸을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마모와 찢어짐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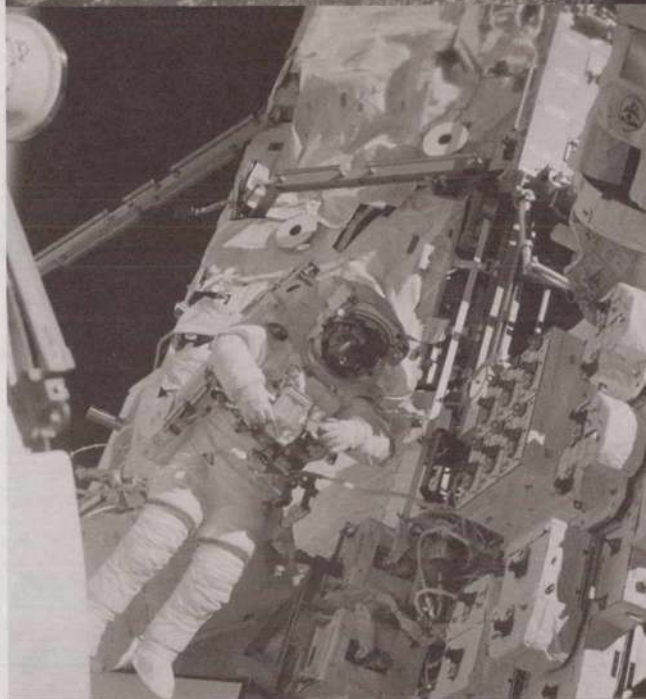
달에 사용되는 우주복은 우주비행사들의 체중에 맞춰 제작한 맞춤형으로 돼 있다. 무게는 무려 84kg이나 되나 달에서는 14kg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달 우주복은 3겹의 내복과 서로 다른

우주복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공간에서 인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특수한 옷으로 우주공간에서는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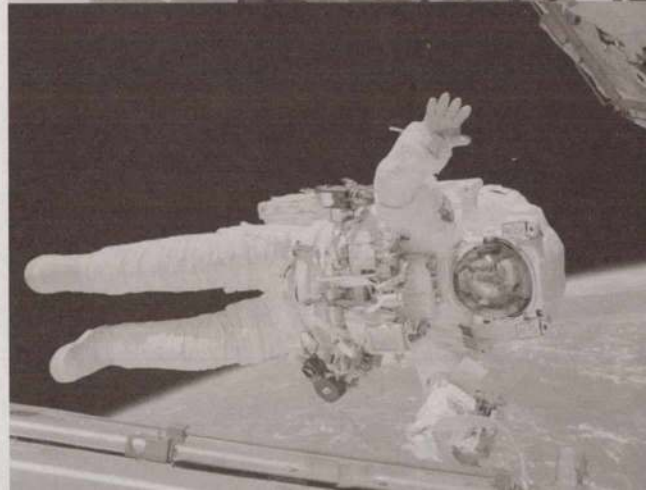


종류의 천으로 만든 22겹을 두른 외복으로 되어 극심한 달의 온도변화와 작은 유성의 충돌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준다.

우주선 내부에서 사용되는 우주복은 미국의 경우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쪽은 은백색의 내열성 나일론이고, 다음은 화학섬유의 그물모양층이며, 세 번째 층이 우주복 속의 산소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즉 나일론 바탕에 합성고무를 칠한 층이고, 네 번째 층이 우주복의 라이너에 해당되며, 나일론천으로 미끄러지기 쉽게 되어 있다. 이상이 표준형 우주복인데, 제미니 7호부터는 내열나일론과 나일론 바탕에 합성고무를 칠한 2개층만으로 부드럽게 만들게 되었다. 또 머큐리 계획의 우주복은 마크 4호라고 하여, 머큐리 캡슐 내의 공기가 새어 지상의 1/4기압이 되면 우주복의 공기 출입구가 자동적으로 닫히고, 다른 출입구에서 공기가 들어와 우주복 속은 원래의 기압이 된다.



이처럼 우주복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신소재 방어벽 덕분이다. 허리, 팔꿈치, 어깨, 손목, 무릎, 그리고 발목부분에는 고무와 베어링이 들어 있어 활동성을 향상시킨다. 우주복은 기본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하나 달에서 암석수집과 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유연성도 갖춰야 한다. ④



# AC-130H/U Gunship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외부에 노출된 인원이나 비교적 약한 장갑능력을 가진 지상표적에 대해 전투기나 공격용 헬기는 기관포와 기관총으로 효과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투기나 헬기의 협소한 탑재공간은 지상표적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은 수송기로 개발된 C-130을 지상 공격용 항공기로 개조하여 저위협 지역에서 미군에게 강력한 화력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C-130은 전술적 필요에 따라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항공차단(Air Interdiction), 무장정찰(Armed Reconnaissance) 등과 같은 다양한 임무에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으며, 장시간 동안 작전할 수 있는 연료탑재 능력과 더불어 105mm 기관포를 포함한 강력한 화력, 경이적 수준의 탄환 탑재량, 그리고 뛰어난 성능의 감지기, 항법장치 및 사격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최고의 지상공격기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기체가 저속비행을 함에 따라 적의 위협에 쉽게 노출이 되고, 제한된 항공기의 기동능력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회피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지상공격기로서의 커다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체 배면에 항공용 장갑판을 보강하고 다양한 자체보호장비를 장착하기는 하였으나 고위협지역에서의 AC-130 항공기의 임무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적 위협에 대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Gunship은 수많은 전과를 올린 바 있다. 1972년에 초도 배치된 이후부터 베트남 전쟁, 그라나다 침공작전, 파나마 전역, 사막의 폭풍작전, 소말리아의 희망회복작전, 보스니아전쟁, 그리고 최근의 아프간 전쟁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적군과 근접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고 적의 방공 시스템을 제압하기 위한 임무에도 투입된 바 있다. 특히 사막의 폭풍작전시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군에 대한 공군기지 방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였다. 최근의 아프간 전쟁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미 국방부는 9.11 테러 이전에는 검토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던 AC-130H형 모델에 대한 AC-130U 모델로의 성능개선 계획을 미 공군에 별도 예산배당을 통해 조기추진함으로써 특수작전부대의 전투능력을 증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미 공군은 현재 13대의 U형 Gunship과 8대의 H형 Gunship을 Florida주의 Hurlburt Base에 있는 16 특수전 부대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훈련에도 파견되어 한국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

## ▶ 제원 및 성능

| 구 분                        | AC-130H Spectre  | AC-130U Spooky   |
|----------------------------|--|--|
| Power Plant                | 4개의 T56-A-15 Engine(4910 H.P/Each)   |  |
| Max T/O Weight             | 155,000lbs(69,750kg)   |  |
| Max Range (Without Refuel) | 1,500miles(1,300NM)  | 2,200NM  |
| Ceiling                    | 25,000ft   | 30,000ft   |
| Speed                      | 300mph(M 0.40) at Sea Level  |  |
| Armament                   | 2×M61 20mm Vulcan with 3,000 rds<br>1×L60 40mm Bofors with 256 rds<br>1×M102 105mm howitzer with 100 rds   | 1×GAU12 25mm Gatling<br>1×L60 40mm Bofors<br>1×M102 105mm howitzer |
| Countermeasures            | AN/AAQ-24 Directional Infrared Countermeasures<br>AN/AAR-44 Infrared Warning Receiver<br>AN/AAR-47 Missile Warning System<br>AN/ALE-47 Chaff and Flare Dispensing System<br>AN/ALQ-172 Electronic Countermeasure System<br>AN/ALQ-196 Jammer<br>AN/ALR-69 Radar Warning Receiver<br>AN/APR-46A Panoramic RF Receiver<br>QRC-84-02 Infrared Countermeasure System |  |

## 가끔, 가슴 저리게 생각나는 공군



공군 인터넷 열린 게시판

공군을 제대한 지 채 반년도 안 지난 사람입니다. 그냥 군생활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1999년에 항공운항특기를 받고 28개월 정도를 공군 조종사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눈이 안 좋아서 그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운 좋게도 조종사와 같이 생활하는 특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조종사분들이 그림고 대대장님, 비행대장님이 그림고... 당연하게도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또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군생활 당시는 조금하고 얽매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쉽습니다.

공군 전투조종사와 가장 가까워서 군생활을 하는 건 우리 특기밖에 없었는데 제가 느낀 공군 전투조종사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도 도망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조종사라는 자신의 신분에 자부심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버리' 업무를 회피하고 있을 때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고 남자라면 '이렇게...' 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립습니다. 가슴 저리게... 아마 인생에서 그런 경험은 없을 겁니다. 그냥 갑자기 군생활이 그리워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아는 조종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구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는 해도 되죠? "이기자! 쌍독수리!"

## 보고 싶다, 전우들아!



공군 인터넷 열린 게시판

난 보급대에 근무하면서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제대하면 그쪽 보곤 오줌도 안 누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던만 막상 제대하고 몇 주가 지나니 너희들이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공군에서 보낸 30개월이란 시간이 또 하나의 사회인 듯 거기에 물들고 말았다. 아버지 같은 분도 계셨고 형 같은 분도 계셨고 친동생 이상으로 여겼던 후임병 녀석들, 내말은 죽어라고 안따르던 녀석들, 제대하고 나니 좀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물 밀듯이 밀려온다. 지금도 보급대에 있을 영공이부터 막내 정섭이까지. 너희들이 있어 내가 몸 건강히 제대하지 않았나 싶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 때문에 운동 싫어하는 녀석들까지 연병장에서 군대축구를 경험해야 했었지. 슬램덩크를 방불케 하는 농구 역시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다.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제대하고 2주 정도는 다시 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향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전역 전 너희들과 사진도 같이 못 찍고 나온 것이 못내 아쉽다. 아! 너희들과 같이 땀 흘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신 11전투비행단 보급대 영의 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제나 힘들거나 고달플 때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여러분들은 진정 저의 아버지요, 형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예비역 고병장 인사드립니다. 필승!

## 믿음직한 공군, 겨울바람을 녹이다

공군 인터넷 열린 게시판

산자락에는 아직도 늦은 가을 단풍이 온 산을 휘감고 도는 11월,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산 정상에 자리잡은 공군 제8991부대에 모범장병 부모로 초대받는 뜻밖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마련해준 차량을 타고 산기슭을 오르면서 오랜만에 자식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과 늦은 가을 경치에 잠시 옛일을 떠올리며 상념에 젖었습니다. 1970년대 휴전선에서 군생활을 한 저로서는 힘들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저 높은 산기슭에서 추위에 떨며 모처럼 만나는 부모를 기다릴 자식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산기슭을 약 40여 분 간 돌고 돌아 내린 산 정상의 매서운 바람은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고, 황량한 풍경 너머에 자리잡은 부대를 마주 하면서 이리저리 눈을 돌려 힘든 군대생활을 하고 있을 제 자식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유약한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늠름하고 다부진 자세로 검색 질 푸른 군복을 입은 공군 이등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대 내에 마련된 장소에서 며칠 전 집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자식의 안부를 전해주셨던 포대장님의 인사말씀과 부대소개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귀한 자식을 길러 나라를 위해 공군에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아울러 "새로 전입한 병사들에게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잘 보살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자 부대의 지휘관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공방위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던 것도 공군에 자식을 맡긴 부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반갑고 미더웠던 것은 제 자식이 늘 지내는 내무반 건물이 참으로 아늑하고 따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중창을 사용한 난방구조와 따뜻한 실내온도는 추운 산기슭에서 힘들게 근무를 서다가도 내무반으로 돌아오게 되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된 깨끗하고 따뜻한 식당을 보고 나서는 적어도 추위에 떨고 배고팠던 지난 날의 저의 군대생활과 같지 않다는 점에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공군 제8991부대 장병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모범장병 초청행사에 참석한 어느 부모



## 2002년의 꿈★, 이루셨습니까?

방송작가 김 은 희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방송쟁이들은 너나없이 괴로움에 봉착한다. '따뜻한 아이템 증후군' 때문이다. 시청자에게 감동과 희망을 줘야 할 의무.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인간적인 것이 부족한 시대에 인간적인 아이템을 찾기로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운 고통. 덕분에 연말이 되면 방송사는 거의 난리가 난다.

며칠 전, 그날도 '연말 아이템'을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희망이니 감동이니 거창한 이야기를 하던 와중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올해 최대의 유행어가 '꿈★은 이루어진다' 일 거라는 말을 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는 게 '꿈'이라면 누군들 꿈이 없겠는가마는, 그러나 '이루어진다'라고 단언하는 문장은 아무래도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에겐 너무 공허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꼭 월드컵 우승만이 꿈★인가. 대통령 당선도 아니라면 어떠랴. 한 해 동안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것, 얻고 싶었던 것을 꿈이라 명명한다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큰 무엇, 그것을 꿈이라 명명한다면... 어쩌면 정말 '꿈★'이란 이루어지기 위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 기분 좋은 결론을 '미스 서'를 통해 배웠다.

지난 달에도 덩수룩히 자란 머리칼들을 참다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미용실에 갔다. 내가 다니는 곳은 미용사만도 스무 명 남짓한 기업식 미용실. 입구에서 정선생 이름을 댄 후 지정석으로 안내를 받아 앉아 있으면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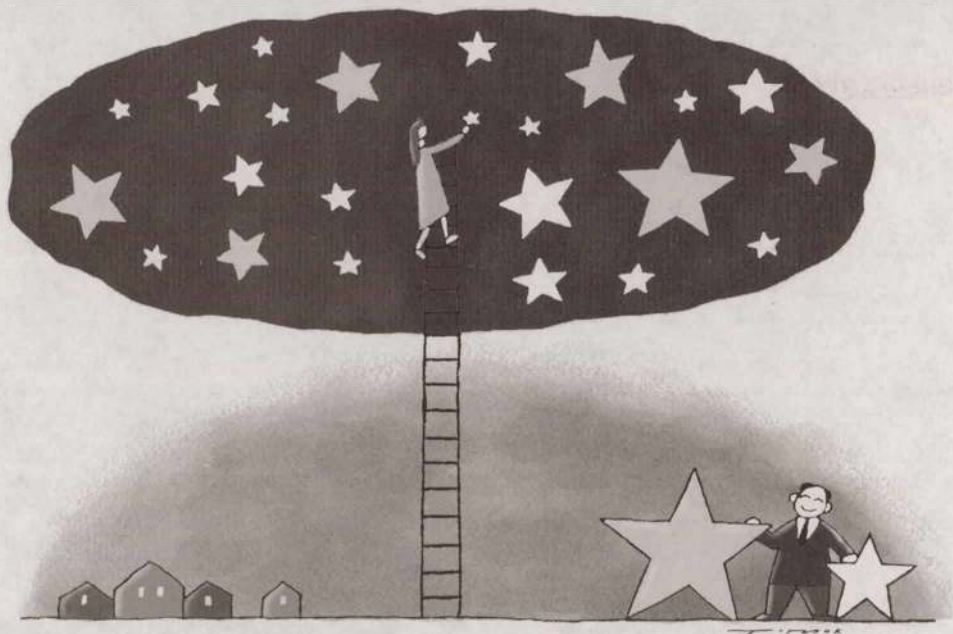
나타나 미소로 인사한다. 정선생의 손에 머리를 맡기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려는 찰나. 그런데... 어라?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작은 키와 다부진 몸매, 보이시한 헤어스타일에 커다란 빨테 안경, 그 속에 담긴 푹푹푹한 눈동자. '그녀'는 정선생의 미용보조다. 내가 정선생의 단골이던 지난 2년 동안 쪽 정선생 곁에 있었으니 그녀와 나의 인연도 꽤 된 편이다. 매달 보는 얼굴이었건만 나는 아직 그녀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그저 '미스 서'로 불리다는 것만 알 뿐.

귀염성 있는 옛된 얼굴과는 다르게 푹부러지는 말투, 단호한 눈빛, 결코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과묵함까지. 그녀는 또래의 여느 미용보조들과는 뭔가 달랐다. 드라이든 청소든 그것에 아예 목숨 건 듯,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일 한 가지를 할 때도 아주 진지했다. 결코 피곤한 모습을 보인 적 없으나 웃는 얼굴 역시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엔 그것이 험난한 일터에서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안간힘에 다름 아니었다.

"색깔 맘에 드세요?" "파마보단 생머리가 나은 것 같은데요." "알아서 해주세요." 서로에게 필요한 말 이상은 결코 하는 법 없던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거울 속의 그녀를, 손질되고 있는 내 머리보다 더 자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이따금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칠 때면 살짝 미소를 주고 받았다. 그녀는 수다스럽지 않고 까탈부릴 줄 모르는 나를 부담 없는 고객쯤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낯선 얼굴이 대신하고 있다. 아직은 미용사의 미래에 부풀어있는 듯, 하지만 곧 여느 미용보조처럼 쉽게 피로한 기색으로 역력해질 어린 얼굴. 그 얼굴만 봐도 나는 지레 피곤해지는 기분이다. 커트가 끝난 뒤 새 미용보조가 머리를 말리기 시작한다. 익숙지 않은 손길이 불편하다. 미스 서는 내가 드라이에 쓸데없이 공을 들이고 불륨 넣어 부풀리기를 싫어 한다는 걸 안다. 그러나 새로운 손은 그 암묵을 배반한다. 급기야 신참은 이런 말까지 하고 만다. “파마하신 지 한달쯤 되셨죠? 다음달에 한번 더 하셔야겠어요.” 무심하고 습관적으로, 콧소리까지 넣어 길게 늘이는 목소리에 나는 짜증이 났다. 미스 서는 머리결에 치명적인 파마를 권하는 따위의 실수는 결코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질문을 결코 하지 않던 나는, 결국 마무리작업을 하러 온 정선생에게 미스 서의 행방을 슬쩍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반가운 것이었다! 얼마 전 미용사 시험에 합격해 보조짜기를 뗐다는 것이다. “그 녀석, 드디어 꿈을 이룬 거죠. 그렇게도 다부지게 일하더니, 결국 해냈어요. 정말 대단한 악바리예요.”

꿈! 순간 내 머릿속에서 띠잉, 현 울리는 소리가 났다. 미용보조의 꿈이 어엿한 ‘헤어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라는 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꿈’이라는 단어가 ‘이루다’라는 술어와

접목되는 것을 일상의 내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순간, 그 문장이 주는 느낌은 뜻밖에도 생경하면서도 한편 감동적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 ‘헤어디자이너’로 발령을 기다리는 중에도 자청해 굵은 일을 도맡아하며 지낸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아하, 멀찌감치 안에서 그녀의 더벅머리가 슬쩍슬쩍 보이는 게 아닌가. 그녀는 여전히 짧은 다리로 종종걸음을 치며 바닥의 머리칼들을 쓸어내는 데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볼까 하다가 관뒀다. 침묵과 눈빛으로 친분을 나누던 사이에 그런 의례적인 인사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았다. 나오기 전 슬쩍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을 뿐. 조금만 더 가까이 갔다면 처음으로 그녀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 2002년의 꿈을 이룬,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미스 서, 그녀는 2003년에 또 어떤 꿈을 꾸게 될까.

미용실을 나오니 거리 가득 사람들이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나치는 얼굴 하나하나가 어쩐지 정겨워진다. 저들 중에도 올 한해의 꿈을 이룬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로운 꿈을 갖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문득, 발을 멈췄다. ‘그러고보니, 나 꿈이 뭐였더라...’ ❄



한국전쟁 당시 강릉기지 제설작업(1953)

강릉은  
예나 지금이나  
눈이 많다.

눈이 오면  
예나 지금이나  
삽질을 한다.

그리고  
한 삽 한 삽  
뜨다보면

어느덧  
삽질의 기본을  
알게 된다.

가장 편한 삽의 각도  
가장 편한 양팔 사이의 거리  
작업능률을 고려한 허리펴기까지

삽질에 숨어 있는  
수학의 원리들을  
깨우치다보면

삽질은 군번순이라는  
숭고한 진리를 알게 된다.

삽질의 달인

요즘엔 눈치우는 기계가  
활주로를 누빈다.  
제트엔진으로  
한방에 날려버린다.

세상 좋아졌다.



## 항공사진과 항공기 사진(1)



항공기 사진작가 김 태 협(www.aircraftphoto.co.kr)

항공기 사진과 관련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항공 사진과 항공기 사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표현오류입니다. 항공(航空)은 항공기로 공중을 비행하는 것을 말하고, 항공기는 사람이 타고 공중을 날 수 있는 탑승물 또는 운행체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항공사진은 넓은 공장지대, 거대한 유조선, 지도제작 등 지상에서는 촬영하기 힘든 것을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 항공기 사진은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과 지상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공중에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찍는 것이 항공사진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의 촬영과 주제에 따라 사진의 명칭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때 항공사진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찍는 사진이고, 항공기 사진은 항공기를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항공기가 찍힌 사진은 전문적인 표현으로 항공기 사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항공기 사진에 대해 좀더 깊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첫번째 임무는 기록으로, 항공기 사진에서도 기록이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공기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사진으로는 항공기의 측면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측면은 항공기의 기수, 캐노피, 공기흡입구, 주날개, 꼬리날개 등 전체적인 항공기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항공기를 기록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항공전문서적 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진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사진 김 태 협

여러분들도 책을 보면서 측면사진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 필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항공기를 찍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인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기동성과 다양한 렌즈 교환이 가능하고 AF/AE가 내장된 35mm SLR 카메라를, 렌즈는 먼 거리의 비행기를 크게 찍기 위한 초망원급(600mm) 렌즈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큰 비행기를 찍기 위한 광각렌즈까지 사용합니다. 렌즈 활용폭이 다른 사진들보다 넓은 편입니다. 필름은 연속 촬영에 따른 비슷한 사진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리고 좀더 좋은 화질의 사진을 위해 포지티브(Positive) 필름을 사용합니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없더라도 여러분들도 렌즈의 초점거리가 35~140mm 정도의 가정용 콤팩트형 카메라 정도로도 몇 가지 선택을 통해 만족할 만한 사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기본적인 항공기 사진 촬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④

# 피카소의 눈으로 세상보기

대전매일 기자 권도연



## 입체주의, 법칙을 허문 미술 대혁명

피카소 그림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피카소는 가장 대중적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화가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주 어렵다고 생각했던 추리문제 해결이 가장 단순한 상식에서 시작하듯 피카소 그림을 이해하는 열쇠도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한다.

1907년 여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젊은 화가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화실에는 피카소와 그의 친구, 선배화가들이 모여 피카소가 몇 달에 걸쳐 완성한 가로·세로 6m짜리 대형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평소 피카소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던 참석자들은 이 그림을 보고 그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원근법이나 대칭을 무시한 채 눈이 비뚤어지거나 얼굴이 뒤로 돌아간 여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배화가 앙리 마티스는 이 그림을 보고 크게 분노했고 절친한 친구 조르주 브라크는 아예 그를 외면했다. 한 미술평론가는 앞으로 순수회화를 그만두고 캐리커처에나 전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충고하기도 했다.

몇 년 뒤 '아비뇰의 처녀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그림은 훗날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현대미술의 시발점으로 평가됐다. 그가 이 작품에서 시도했던 기법은 '입체주의(큐비즘)'로 입체주의는 20세기 미술의 핵심 추상회화로 발전한다.

## 파격의 실험정신, 현대미술의 이정표

평생 4만 4천여 점의 작품을 남긴 피카소는 창작열과 함께 미술발전과정의 신화적 인물로 남아 있다. 그의 입체주의는 하나의 미술장르를 넘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관련,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

입체주의란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입체적인 구성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그릴 때 각기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두 개의 얼굴을 그려 넣어 회화에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것이다. 피카소는 인체를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키고 전통적인 원근법을 완전히 부정했으며, 종래의 명암법과 채색법을 무시했다. 신기한 것은 피카소의 그림을 각도를 달리해가며 조각 맞추기처럼 화면을 재구성하면, 추상화가 사실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기존의 상식과 습성에 집착하지 않으며, 새로운 발명과 발견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돼 왔다. 올 겨울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 배움의 과정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유연한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복돋워보자.



의 모습을 갖춰 간다는 사실이다. 피카소를 천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변형을 통해 사물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체파 화가들은 도대체 왜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한 걸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피카소는 걸모습은 보는 각도에 따라 항상 변하지만 사물의 구조는 짜임새의 원리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 증명하고 싶어 했다. “나는 찾지 않는다. 다만 발견할 뿐이다”라고 말했던 피카소는 어떤 대상을 한 위치에서 고정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방향에서만 부분적으로 진실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화가는 스스로 보이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면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카소의 그림은 풍경화나 장식적인 그림에 비해 그리 아름답지 않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의 그림이 매력적인 이유는 매우 지적이며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대상을 해체하고 분석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대상의 서정성과 부드러움이 피카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던 대상을 앞에서 보고 위에서 아래에서도 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각에서 보았던 형태를 화가의 영감으로 평면에서 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피카소를 거장이라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입체파 이후로도 하나의 미술양식에만 집

착하지 않았고, 또 그림 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새로운 조형세계를 펼쳐 보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술언어를 낳기 위한 진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의 미술계에 대해 지난 시대 거장의 작품이 담고 있는 실험정신과 성과는 반추해 볼 가치를 갖는다.

#### 발상의 전환, 더 넓은 세상

사람은 보고 느끼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다양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고정관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대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가 공통으로 가지는 독특한 고정관념이 그 사회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고 할 때, 고정관념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역시 고정관념인 셈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한 사회나 개인은 정체하게 된다.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이를 다시 교육하고 학습하면서 새로운 고정관념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기존의 상식과 습성에 집착하지 않으며, 새로운 발명과 발견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돼 왔다. 우리도 종종 발상의 전환을 경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 겨울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 배움의 과정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유연한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복돋워보자. 📌

# 오, 아름다워라, 비루한 일상이여!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강홍구 지음/황금가지



KBS 기자 이진성

서울과 지방의 문화격차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니라고 항변하는 이라도 지방문화가 서울의 그것을 지향한다는 항변에 토달긴 어려울 것이다. 어디 서울-지방만 차이가 있을까. 같은 서울하늘 아래라도 강남과 강북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천양지차다. 특히 두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한참 다르다. 머리를 겨우 가리는 깃털머리, 짝 끼는 교복, 촌스럽게 기른 구레나룻에 동대문 패션 등을 몇의 척도로 여기는 강북과 회색으로 물들인 머리에 땅에 끌리지 않는 험렁한 바지, 셔츠에 니트 조끼를 걸치고, 수입신발을 신는 강남 아이들. 남다른 개성과 타인과의 차이를 지향한다 하여도 이들은 화석화된 유행을 좇는다는 점에서 '키치'에 물들어 있다는 비판을 비껴가기 어렵다. 이걸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저자가 책 전체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바다. 오, 비루하기 그지 없어라, 우리를 둘러싼 일상들이여!

아닌 게 아니라 책이 달고 있는 제목은 역설적이 짝이 없다. 책을 꼼꼼이 따라가다 보면 '시시한 것'들이란 사실 인간사의 전부인 의·식·주에 관련된 '시시할 수 없는 것'들이고 '아름다움'이란 금새 '추함'으로 전락하기 쉬운 실로 위태로운 것들이다. 보라, 전신주에 덕지덕지 붙은 전셋집 광고와, 신문에 끼어 배달되는 광고전단, 함부로 붙어 있는 스티커 사진, 개나 소나 염색하는 머리칼, 길거리에 파는 봉어빵하며 틀로 찍어낸 듯한 아파트(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외라), 이발소의 가짜 명화, 상투적인 표어

와 아무렇게 나붙은 플래카드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각문화들을. 누가 이 도저한 일상들을 무심히 비껴갈 것인가. 이들 모두를 의식적으로 거르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대, 그대는 이미 도시(혹은 모더니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책은 무의식을 통해 무심결에 받아들이는 이들 시각문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분석'이라기보단 '통찰'에 더 가깝다.

'웨이터 광고는 무엇보다 지금 누가 대한민국에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척도로서 유용하다' '오늘의 사진에 있어 카메라와 피사체의 관계는 (...) 일종의 공모 관계이다' '정서의 재소비는 정서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차림이 거칠수록 의식은 복잡하고 길어진다' '밥 중심주의와 함께 우리의 상차림을 관통하는 원리는 오른손 중심주의이다.' 일상을 관통하는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은 책 도처에서 지뢰처럼 눈에 밟힌 뒤 '팡'하고 터져 키치에 절어 화석화된 독자의 뒤통수를 때린다.

23편의 글 각각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사물이 자신이 지닌 합목적성을 상실하는 순간 키치로 전락하기 마련이며 키치는 곧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통찰을 나름의 논거로 제시한 이 책은 당위적인 결론이 없다. '그냥 생각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정도에서 머뭇거리는 저자의 고민이 절실히 느껴지기는 하지만. ㉠



서울시 교향악단 양창섭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두 시간짜리 대곡을 좋아한다는 대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물주의의 냄새가 짙다. 예전에는 솔직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공히 최고의 클래식은 '이 무지치'가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였다. 비발디가 무시해도 좋을 음악가는 결코 아니다. 그는 수백 편의 협주곡을 통해 협주곡 양식을 확립하였으며, 바흐는 북스테후데 말고도 비발디가 있고서야 바흐일 수 있었다.

<사계>만 보아도 소네트에 따른 각 계절의 묘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의 상상력을 펼치게 해준다. 봄 1악장의 새소리와 천둥 번개의 묘사나 겨울 2악장의 따뜻한 난로가의 정경묘사에서 보여지듯 그가 음악을 통해 풍경과 정서를 함께 표현해 내는 능력은 참으로 탁월하다. 비발디에게는 이 곡이나 저 곡이나 다 비슷하다는 비난이 따라다니지만, 그것은 그의 작품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계>가 속해 있는 작품 8, 곧 <화성과 창의에의 시도>나 작품 3 <조화의 정신>은 각기 12개의 협주곡, 2시간 가까운 방대한 양이지만 어느 악장 하나 버릴 것 없이, 이 작곡가 특유의 서정과 활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추천음반 : 파비오 비온디와 에우로파 갈란테의 음반).

그는 바로크 시대의 인물답게 성악곡, 종교곡 작곡에도 탁월하였는데, <스타바트 마테르>와 <니시 도미누스>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 곡들에서 비발디는 감정의 과잉에 빠지지 않고 종교적인 슬픔과 경건함을 예의 그만의 선율에 실어서 노래한다. 이 노래들이 있기에 바흐의 <마태 수난곡>이나 수많은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의 선율이 있는 것이다(추천음반 : 안드레아스 솔이나 데이빗 다니엘스의 음반).

비발디에게 바이올린이 있다면, 바흐에게는 오르간과 쳄발로가 있다.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파르티타>, <이탈리안 콘체르토> 등은 바흐의 이성과 감성이 잘 결합되어 있는 아름다운 곡들이다. 성악곡으로 따지자면,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나 칸타타 <나는 만족하나이다> 등을 거쳐 <마태 수난곡>으로 가야 할 것이다. 기나긴 곡들은 부담감 없이 조금씩 귀에 익혀보면 참으로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음악들이 흐를 것이다.

바흐의 진경을 느껴보고 싶다면, <음악의 현정>이나 <푸가의 기법>에 도전해보길 권한다. 바흐도 베토벤이 그랬듯이 만년작을 통해서 수많은 전작들과는 다른 경지로 넘어가고 있다. 바흐에게 어른거리던 비발디류의 인간적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증류수처럼 무색무취한 아름다움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

# 방 안에 밀폐된 공포, <하얀방>

영화평론가 김지훈

회사 동료인 인기 토크쇼 아나운서(계성용)의 아기를 가지게 된 PD 한수진(이은주)은 취재차 만난 최형사(정준호)에게 똑같은 산부인과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죽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진은 병원을 알아보던 중 역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고, 죽은 여자들이 모두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상태로 죽었음을 알게 된다. 낙태 수술 이후에도 임신의 기운을 느끼는 수진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첫 번째 죽음이 시작된 오피스텔 1308호로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미스터리와 호러장르를 결합시키는 건 만만해 보이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쉽지 않다. 미스터리와 행보가 지나치면 공포가 길을 잃고, 공포가 지나치게 앞서면 미스터리 단서를 깔아놓기 힘들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신비를 음미하며 오싷한 두려움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장르 영화의 딱 짜인 활력을 끌어내기 힘든 것이다.

<하얀방>에 들어간 관객은 어설픈 출현했다 잦아드는 공포와, 단서만을 남긴 채 지리멸렬하게 버려진 미스터리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된다. 공포영화에서는 '최초의 장면'이 중요하다. 관객은 임신한 최초의 희생자(자폐적인 화가로 밝혀진다)가 정체 모를 남자의 발길질에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정작 이 영화가 제시하는 미스터리

'보게 되면 죽는다'는 산부인과 사이트의 정체다. 놀랍게도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인과적 연결고리도 없다. 원한을 품은 영혼이 초고속 전송망을 타고 되돌아오는 것인가? 죽은 여자들이 모두 배가 부른 채 고통에 신음하다 죽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저주 탓인가? 살인자가 밝혀지는 순간, 시나리오의 허술함 때문에 투박하게 끊어진 미스터리 단서들과 접속하는 일은 곧바로 '로그아웃'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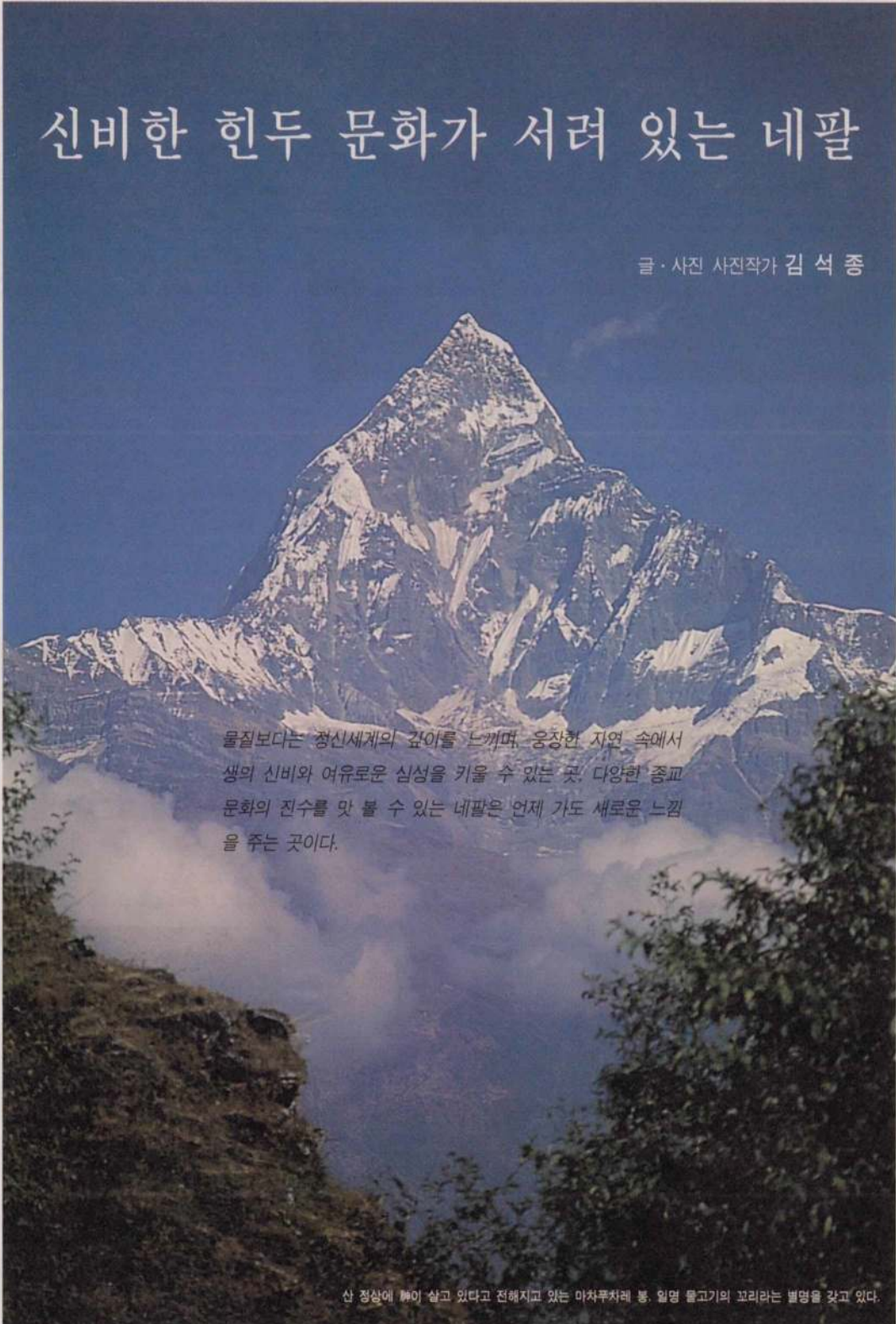
그렇다면 공포는? 처음에 주인공 수진은 시선의 주체(수진은 비디오카메라의 시점으로 최형사의 사건을 알아가게 된다)로 설정됐지만 점점 카메라 뒤로 빠져 보이지 않는 원혼의 시선 대상이 된다. 그녀가 관찰하는 것이라곤 '유령 들린 방' 1308호에 스며든 낯섦과 불길함의 자취들이다. 그 순간 주관적 시점과 객관적 시점을 교차해 놀라게 하려는 장치들이 몇 번 난폭하게 끼어 든다. 공포는 거기까지다. 냉혹하고 끈질긴 생명력과 모성의 풍요로움이 교차하는 '하얀방'의 흡인력은 더 이상 없다. 그러기에 "내 안의 아기를 잊고 있었어요. 내가 진정한 여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수진의 대사는, 겁에 질리고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서 미끄러져 나간다. 음침함과 신비감이 시각적으로만 치장된 화면 위로 쇠베르크의 복잡한 조곡과 바르토크의 우울한 오페라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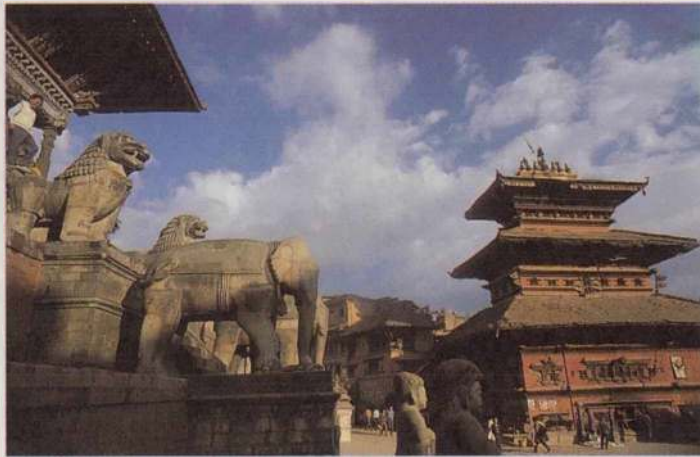
# 신비한 힌두 문화가 서려 있는 네팔

글·사진 사진작가 김 석 종



물질보다는 정신세계의 깊이를 느끼며, 웅장한 자연 속에서  
생의 신비와 여유로운 심성을 키울 수 있는 곳. 다양한 종교  
문화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네팔은 언제 가도 새로운 느낌  
을 주는 곳이다.

산 정상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마차푸차레 봉, 일명 물고기의 꼬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마프라 왕조의 古都인 바그다풀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티베트와 접하고 있는 네팔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산악국이다. 히말라야산맥으로 나누어진 대규모의 대륙간 경계에 자리한 까닭에 그만큼 외부 문명의 침투가 적어 독특한 민속과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8,000m급의 고봉들이 연이어 솟아 있는 네팔은, 온 세계 등산가들이 정상정복을 꿈꾸는 산악왕국이기도 하다. 네팔의 수도는 카투만두. 대승불교와 힌두교의 찬란한 종교 문화를 꽃피웠던 곳으로 가는 곳마다 문화 유적들이 깔려 있어 사철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이다. 카투만두의 인구는 65만 명 정도. 그 중 55만명이 힌두교도이다. 힌두교는 다른 종교와의 마찰을 빚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팔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네팔의 힌두교는 모든 종교의 혼합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

큼 타종교의 교리를 대부분 채용하고 있다. 네팔인들이 믿는 신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신은 브라호만(창조신), 비슈누(수호신), 시바(파괴와 재창조의 신)이다. 네팔의 사원에 가면 이들 신의 여러 혼합형태가 자주 등장하는데, 네팔인들은 부처도 비슈누 신의 한 화신(化身)이라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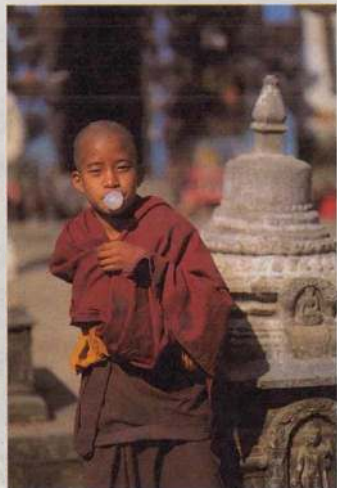
1427년에 말라왕이 건립한 비슈누 신상(神像)은 한 그루의 나무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신상의 정면과 좌우에 버티고 선 수호상 또한 거대하다. 이 밖에도 네팔인들은 초경이 있기 전인 어린 처녀를 간택하여 신으로 숭상하기도 한다. 카투만두의 꾸마리 사원에 가면 조그만 창문을 통해 어린 소녀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바로 이 소녀가 네팔인들이 신으로 숭상하는 처녀신인 셈이다. 이 처녀신에 대한 네팔인들의 경의심은 대단하다. 네

팔왕도 꾸마리 사원에 오면 처녀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처녀신도 월경이 시작되면 신에서 떨어져 인간으로 돌아간다. 카투만두의 교외풍경은 아름답지만 시내에 들어서면 앞이 잘 안보일 정도로 공기가 나쁘다.

분지에다가 1960년대 고물차들이 하루 종일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다니기 때문이다. 서울의 공기는 카투만두에 비하면 양반이다. 하지만 카투만두에는 유서 깊은 마프라 왕조의 유적들이 오래된 사원들과 광장, 화장터 등 볼거리가 산재해 있어 제대로 보려면 1주일일 잡아야 한다.

이 많은 유적 중에서 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와얌 부나트 사원과 마프라 왕조의 고도인 파탄과 바그다풀, 그리고 힌두 성지이며 화장터인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꼭 둘러보아야 할 명소들이다. 스와얌 부나트는 지은 지 2000년

종선점을 불며 무트함을 달래고 있는 어린 신도





네팔의 민속춤은 활기차고 절도가 있다.

이 넘는 불교 사원으로 카투만두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주변에는 석불과 사자, 코끼리 등의 조각이 늘어서 있고 꽃과 쌀을 들고 복을 기원하는 참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사원 근처에는 야생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일명 몽키템플이라고 불리운다. 또한 시내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힌두성지인 '파슈파티나트'에는 유명한 화장터가 있다. 힌두어로 '짐승의 주인'이란 의미를 지닌 이 화장터에서는 연중 내내 불꽃이 꺼지질 않는다. 이 곳에서 화장을 해 재를 강물에 뿌리면 다시금 환생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바그마티강을 낀 화장터 화장대(火葬臺) 위에 노란색 사리로 몸을 덮은 시체 1구가 나무의 불길에 휩싸인 채 '탁 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강 건너 관광객들이 지켜 보고 있는데 시체의 재가 강물에 떨어

지고 있었고, 윤회를 꿈꾸는 힌두의 영혼은 힌두의 성수인 갠지스 강으로 흘러 들리라.

히말라야 만년설의 고봉들이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은 포카라이다. 포카라의 페와 호수(Phewa Lake)에 배를 띄우고 호수물에 비친 만년설의 찰랑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분이란 신선한 공기만큼이나 상쾌하다. 또한 이 곳은 산악 트래킹의 주요 출발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 며칠씩 눈 덮인

산기슭에서 히말라야의 멋진 풍경을 가깝게 감상할 수 있는 포카라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트래킹은 산사태나 돌발적인 조난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안내원의 동행이 필수적이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 문맹률은 80%나 되는 네팔이지만 네팔인들은 누구에게든지 순박한 큰 웃음을 잘 짓는다. "나마스떼(안녕하세요)"하면서 누구한테나 두 손을 합장하는 그들에게선 가난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낙천성과 착하게 살면 후세에는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어우러져 어려운 질곡의 삶을 씩씩하게 견뎌내는 정신적인 힘이 느껴진다. 물질보다는 정신세계의 깊이를 느끼며, 웅장한 자연 속에서 생의 신비와 여유로운 심성을 키울 수 있는 곳, 다양한 종교문화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네팔은 언제가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다. 📍

카투만두 인근의 화장터인 '파슈파티나트'. 네팔인들은 화장을 해 그 재를 강물에 띄워 보내면 환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비행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 - 2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은 현대사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큰 비극으로 기록된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고, 전쟁 이후 세계 질서를 양분한 소련과 미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비극을 공유해야만 했다. 전쟁이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때문에 군사력은 전쟁 억제력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만을 남긴 채 60여 년이 흘렀다.

전쟁의 영향이 컸던 만큼 오늘날까지 많은 매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2차 세계대전을 회고하고

있다. 게임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모든 소재가 게임화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스피트파이어와 메사슈미트 간의 공중전, 셔먼과 타이거의 전차전, U-보트의 수송전단 급습, 노르망디 상륙작전, 비스마르크와 아크로열의 해전 등을 게임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다.

지금 소개할 게임들은 서부전선에서 공중전을 펼치는 소위 프로프 시뮬레이션(Prop Simulation: 프로펠러 비행기를 조종하는 시뮬레이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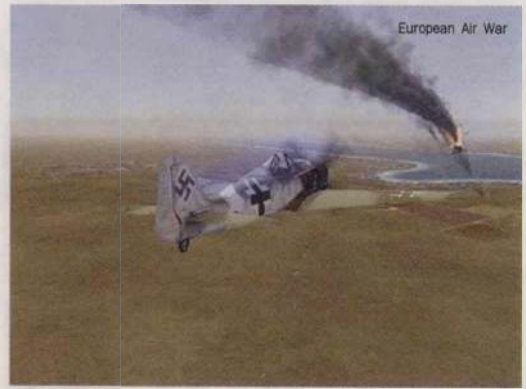




프롭 시뮬레이션은 현대의 공중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

현대의 공중전은 레이더와 미사일로 대표되는 테크놀러지의 전쟁이다. 최근에 와서 스텔스 기술이 가세하면서 레이더마저 지난 시절의 유물이 되려고 한다. 반면에 프롭 시뮬레이션의 전투는 단순성과 섬세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무장이 기관총뿐인 만큼 호흡이 긴 전투가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집요함이나 숙달된 비행능력이 필요하다.

소개하는 세 가지 게임 모두 1998년에 출시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플레이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 개발사 세 곳에서 최고의 프롭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받기 위해 개발했는데, 공교롭게도 무승부라 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세 게임 모두 각각의 개성을 가진 뛰어난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각 개발사의 대표작이 되었고, 게임의 역사에서도 프롭 시뮬레이션의 대



명사로 자리잡았다.

#### 유러피언 에어워(European Air War: 1998, 마이크로프로즈)

마이크로프로즈(MicroProse)는 펠콘 4.0으로 잘 알려진 비행시뮬레이션 게임의 대표적인 명가이다. 때문에 유러피언 에어워는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비록 펠콘의 명성에 비할 수는 없다해도, 2차 세계대전의 공중전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평가받았다. 유러피언 에어워의 백미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한 화면 가득 등장할 때이다. 지상에서는 대공포마저 발사되어 하늘이 온통 전투기와 대공포화로 가득해 지면, 전장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음을 생생히 느끼게 된다.

#### 컴뱃 플라이트 시뮬레이터(Combat Flight Simulator: 199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Flight





Simulator) 시리즈로 이미 시뮬레이션 게임 최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컴뱃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이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엔진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그 때문에 비행모델의 사실성이나 정교함에서 있어서는 탁월함을 보여준다. 출시 당시에 다른 게임들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는 바람에 평가절하된 면도 없지 않지만, 꾸준히 후속작이 발표된 것은 컴뱃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뿐이다. 후속편인 컴뱃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는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미국군과 일본군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으며, 3편은 최근에 출시되어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 2차 세계대전 전투기(WW2 Fighters: 1998, 제인스 컴뱃 시뮬레이션/일렉트로닉 아츠)

제인스 컴뱃 시뮬레이션은 군사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일렉트로닉 아츠의 자회사였다. 제인스 컴뱃 시뮬레이션에서 개발된 WW2 Fighters는 유러피언 에어워와 쌍벽을 이

루는 명작으로 기록된다. 이런 우수함은 이전 세대들의 게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진보된 특징들 때문이다. 그에 해당하는 첫번째 특징은 정교하고도 세심한 표현력이다. 기관총을 발사할 때 배출되는 탄피들을 볼 수도 있고, 피탄되었거나 기체가 파손되었을 때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날개가 부러졌다면 철골구조가 보일 정도다.

최신의 게임들은 모두 이런 세심한 표현을 계승하고 있다. 둘째로는 상황에 따른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다. 이륙 후에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착륙바퀴(랜딩기어)를 내리면, 공기저항으로 인해 바퀴가 여지없이 부러지고 만다. 설령 속도를 적절히 줄여 바퀴가 무사히 내려왔어도 거칠게 착륙을 감행하면 그 힘을 못 이겨 부러지기 십상이다. 그런가 하면, 전투 중에 한 쪽 날개가 절반 가까이 파괴되어도 양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대로 거친 비행을 유지할 수 있다. ⊕





## 공짜의 유혹

인터넷서퍼 이 수 영 sy\_lee@cultizen.co.kr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경고성 속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점으로 우리의 폭발적인 인터넷 성장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접속을 위한 약간의 투자만 마치면, 모든 것이 공짜니까 말이다. 각종 뉴스와 정보검색은 물론, 게임, 만화, 영화, 음악, 사진감상 등 누가 이렇게 돈을 들여 구축해놓았는지도 모를 방대한 문화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양질의 컨텐츠라면, 무료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다. 이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투자모드에서 수익창출모드로 돌아섰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생겨나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인터넷도 돈을 내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한 사이트가 유료화되면, 또다시 어디선가 생겨나고 있을 무료컨텐츠를 찾아 서핑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유료 컨텐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만화이다. 엔포(www.n4.co.kr), 코믹스투데이(www.comicstoday.co.kr) 등은 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상당한 독자도 확보했다. 그러나 저작료나 독자서비스 등, 여러 가지 비관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영화는, 동영상이란 것이 부피가 크고 접속의 안정성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는 드문 편이다. 헌트무비(www.huntmovie.com) 등과 각 포털사이트의 영화채널에서 몇몇 영화를 1,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상영하는 정도다.

반면 매니아필름(www.maniafilm.com), 씨네포엠(www.cine4m.com) 같은 곳에서 상영하는 단편영화들은 여전히 무료이다. 물론 장편 상업영화보다는 완성도나 재미가 덜하지만, 재기발랄한 신인 영화인들의 상상력과 자유로운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료시사회 정보이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관객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진행되는 시사회는 영화잡지나 영화 관련 TV 프로그램, 포털사이트, 심지어 카드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최되는데, 이런 시사회 일정을 모아서 전해주는 기특한 개인 홈페이지(www.pixmovie.net 등)도 있다.

음악 역시 인터넷 향해자들에게 있어 빠질 수 없는 공짜 아이템이다. 벅스뮤직(home.bugsmusic.co.kr)처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원하는 음악을 찾아서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의 인기가 높다. 소리바다(www.soribada.com)는 단순한 기업활동이나 소비자들의 공짜심리와는 좀 다르다고 해서 이를 '공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디지털은 그 자체로 손쉬운 복제와 전송수단을 제공하며,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정보공유 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벅스뮤직은 물론 소리바다도 고발을 당하는 등 대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도 윈맥스(www.winmx.com)나 카자(www.kazaa.com) 같은 P2P 원리를 이용하는 등 대체물들이 새로이 번성하곤 한다. ☹

# 연말연시 술조심!

제17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이 승 철



월드컵의 해니 어찌니 하면서 한해를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해 농사 가을걷이를 잘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 혹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매단 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일선에서 직접 검찰관으로, 법무실장으로 사건을 접하다보면 사건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오히려 자그마한 실수에서 출발한 것이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이 그러하고 대민폭행이나 재물손괴, 군무이탈이나 업무상횡령 같은 범죄들이 그 출발점을 살펴보면 지극히 사소한 점에서 출발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잃어 버리고 용감(?)하게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술이 그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아니면 음주운전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과다부채자가 되었고, 그러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절제하지 못한 유흥문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군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늘 돈문제만 신경쓰게 되며, 이에 따라 이어지는 상급자들과 선배, 동기들의 질책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각이나 결근이 잦아지다가 결국은 군무이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담감으로 공금에 손을 대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업무상 횡령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맨 정신에 민간인과 싸움을 하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민폭행이나 재물손괴의 경우도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술을 깨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술, 잘 활용하면 기분전환의 촉매제로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윤활유로서 약이 될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타인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독이 되어 버리는 야누스 같은 존재입니다.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첫 걸음은 바로 이 야누스적 존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데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입니다. 술, 약으로 활용할 것인가 독으로 쓸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



## 겨울철 감기, 안녕!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홍승권

감기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할 때 걸리기 쉬우며 코감기, 재채기로 시작하여 기침, 콧물, 미열, 근육통, 목의 통증, 눈물,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대개 3~4일 지속되며 간혹 10일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독감은 쇠약감과 함께 근육통, 심한 두통, 눈의 통증 등을 동반하며 갑자기 시작되고 그 증상이 심하다. 열은 보통 39℃ 이상의 고열이고 3~5일 지속되기도 한다. 회복된 후에도 피곤함이나 쇠약감, 혹은 기침이 3주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 완치약은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치료가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독감을 빨리 낫게 하는 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쓸 수 있다. 먼저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특히 열이 날 경우에는 더더욱 휴식이 필요하다. 흡연이나 간접흡연을 피하도록 하며, 물이나 주스 같은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수분은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탈수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목이 아프고 코막힘 증상에는 꿀을 탄 뜨거운 레몬차가 좋다. 코가 막

힐 때는 식염수나 미지근한 물을 코에 떨어뜨리면 덜 막힌다. 따뜻한 소금물로 하루 수회 양치질을 하면, 목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에서 돌아온 후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손으로 눈이나 코를 비비지 말아야 한다. 특히 컴퓨터 키보드를 잘 닦아놓아야 한다. 타인과 악수를 했거나 공공장소, 교통편에서 만진 손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겨울철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하고, 전염성이 강한 초기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급적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할 경우는 감기나 독감 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귀가 아프거나 진물이 날 경우, 얼굴이나 이마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체온이 39℃가 넘을 경우(특히 호흡이 가빠질 경우)이고, 목의 통증, 기침이나 목선 것이 계속 나빠질 때, 숨쉴 때 '쌩쌩' 하는 소리가 날 때는 후두와 폐에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



73기상전대 연구조사실장 중령 염영경

12월, 겨울이 깊어 가면서 들판은 황량함으로 가득 차고, 찬바람으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움추려 든다. 하지만 함박눈이 내리는 길거리는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고 한해를 보내는 우리 마음은 더욱 바빠진다.

12월은 한랭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 시베리아와 몽고지방에서 발달하는 한편, 알류산 저기압도 상대적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는 겨우내 반영구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한다. 월평균 기온은 7°C ~ -3°C로 아침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 따라서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니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겠다. 강수량은 30mm로 연중 가장 적지만 강설량은 점차 증가해 월평균 강설량이 10cm에 달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2월에는 서해안지역에, 1월에는 동해안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다.

지난 1990년 1월 31일 강릉에서는 하루에 78cm의 눈이 내려 일일 최대 강설량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기상이변과 엘니뇨로 인해 폭설과 함께 악기상이 자주 예상되니 취약지역 점검은 물론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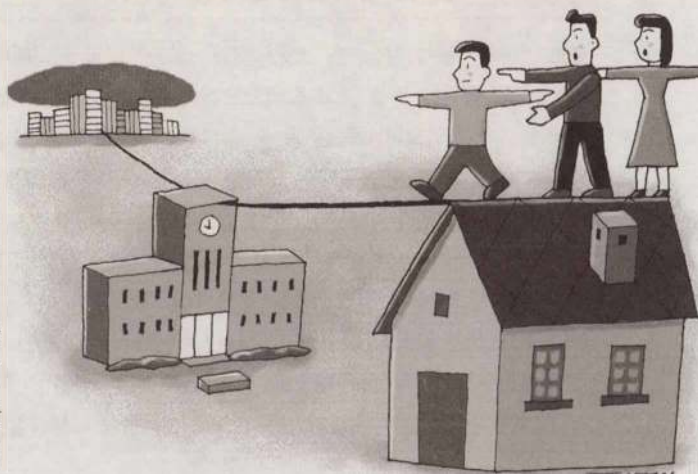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았던 해였다. 국내에서는 뚜렷한 장마가 없이 6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 강한 집중호우가 자주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보였고 9월에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약 5조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한 해였다.

절기로는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이 7일이고, 팔죽을 쑤어 먹는다는 동지(冬至)가 22일이다.

12월, 정다운 이야기 속에 긴긴 겨울밤은 깊어가고 창문 너머 들판에는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겨울 풍경이 아련히 떠오르는 시기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이지만 정작 12월이 되면 무엇인가 쫓기듯 마음부터 바빠진다.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지 않은지, 정초에 계획했던 일들은 얼마큼이나 실천했는지, 내가 아닌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때다. 잠시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는 출발선인 것이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겠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자기성찰을 조용히 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

# 정훈(庭訓)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정훈(庭訓)이란 공자가 자기 집안의 뜰(庭)에서 그의 아들 백어(伯魚)에게 훈계(訓戒)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공자가 집안 뜰을 서성이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 들어오자 불러 세워 놓고 한 말이 “리(鯉 : 아들이름)야. 요즈음 시를 읽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아들은 “아직 읽어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인정과 도리에 통하지 못하며,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스승에게서 시를 배우도록 하여라.”라고 했다. 시를 배우면 사리에 통달해져서 심기가 화평해 진다. 그러므로 도리에 밝으며 바른 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또 어느 날은 뜰 앞을 지나가는 아들을 불러 놓고 “예를 배웠느냐?”하고 물었고, 아들은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예를 배우지 않으면 행동의 기준을 찾을 도리가 없으며, 홀로 설 수 없느니라. 그러하니 예를 배우도록 하여라.”라고 말했다. 예를 배우면 품절(品節)이 자세하고 밝아져서 덕성이 굳게 정해지는 법이며, 그러므로 능히 홀로 설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한편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 중에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와 더불어 맹모단기지교(孟母斷機之教)가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베틀에 짜고 있던 베를 끊었다는 말로 학문을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짜고 있던 베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아들에게 훈계해준 일화에서 비롯된 말이다.

집을 떠나 공부하던 맹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도 집이 그림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맹자를 반갑게 맞아주는커녕 베틀에 앉은 채로 맹자에게 엄히 물었다. “공부는 다 했느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곁에 있는 칼을 들어 짜고 있던 베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나무랐다. “네가 공부를 하다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지금 내가 짜고 있던 베를 중도에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맹자는 곧 추상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알아차리고 다시 공부길을 떠나 학문의 도를 이룬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 이야기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가정교육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자와 맹자 어머니의 교육방법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스스로 실천수범을 보이는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바르게 되면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바른 사회가 되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립인물

## 장건상(張建相)

1882년 부산 동래 출생. 호 소해(宵海). 1916년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중국으로 망명, 상해 임시정부 외교위원을 거쳐 외교총장대리를 역임하였으며, 독립운동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북경 감옥에서 2년간 복역하였다. 1930년 베이징 화북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42년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학무부장에 취임하였다.

광복 후 귀국하여 1945년 민주전선 부의장·한중문화협회 고문 등을 지내고, 1946년 조선인민당 부당수·근민당 위원장 등에 취임하였다. 1948년 김구·김규식 등과 함께 남북정치 협상차 평양에 다녀왔다. 1950년 부산에서 제2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1956년 진보당결성추진위원회 조직책으로 활동하였고 민족혁명당 준비위원장이 되었으며, 1961년 혁신당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198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문화인물

## 손진태(孫晉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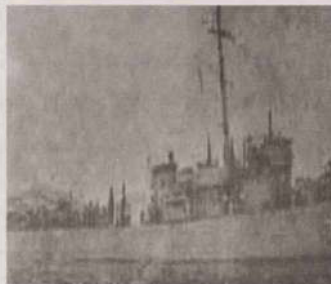
1900년 부산 출생. 호 남창(南滄).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과에서 역사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1927년 대학을 졸업하고 동양문고에 재직하면서 민속채집을 위해 전국 각지를 탐방하였다. 1933년에 귀국한 후 연희전문 강사로 교단에 섰으며, 조선민속학회를 조직하고 한국 최초의 민속학회지인 <조선민속>을 간행하였다. 1934년 진단학회 창설에 참여하였고, 광복 직후 경성대학 사학과 교수가 보임, 1946년 서울대학이 창설되자 문리과대 사학과 교수로 취임하였다. 1949년 서울대학 사범대 학장, 1950년 문리대 학장을 거쳐 문교부차관 겸 편수국장을 맡았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어 그 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1930년대 후반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민족이 살아나갈 길을 명시하는 학문'을 찾아 민속학에서 한국사학으로 전환하였으며, 광복 이후 '신민족주의사관'을 제창하여 민족 내부의 균등과 단결, 이에 기반한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국사를 서술하였다. 저서로는 <조선고가요집>, <조선신가유편>, <조선민담집>,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조선민족사개론>, <국사대요>, <국사강화> 등이 있다.



호국인물

## 이태영(李泰榮) 해군중령

1927년 서울 출생. 1949년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납북된 인천경비부 미고문관 전용 피켓보트 1척을 탈취하기 위한 동금포기습작전시 해군첩보대 팔학지구 파견대장이었던 이태영 대위는 해상 작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인민군 5명이 승조한 적선 1척을 나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던 중 1951년 12월 26일, 적탄이 UN군 함대의 주위에 떨어지자 함정들은 안전해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이태영 중령의 704함은 떨어지는 적탄을 피하면서 적진 가까이 접근, 각종 화기로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적의 사격을 제압하던 중 적의 기뢰에 침몰, 애환과 함께 함장 이하 승조원 57명이 전사하였다.



## 건빵 한 봉지의 추억

제17전투비행단 상병 이강진



오늘도 어김없이 대대본부에서 건빵을 지급받았다. 이 초록색 건빵 한 봉지를 볼 때마다 훈련소 때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일주일에 한 봉지씩 받던 이 건빵을 먹기 위해 건빵 지급날의 훈련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 날 저녁시간 건빵을 먹으면서 행복해 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군인이 다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미 다 먹어버린 봉지를 아쉽게 바라보며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 동기생들 건빵봉지를 훑어져라 쳐다보면서 던져주는 건빵 한 개에 행복해하던 이도 있었다. 그리고 몰래 남겨둔 건빵 반 봉지를 모포 밑에 감추어 두었다가 어느 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든 동기생들 눈치를 보며 한 알 한 알 입에 털어 넣었던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조신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구석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소리. “야! 무슨 소리아? 치사하게 부스럭대지 말고 나눠 먹자!” 순식간에 수십 개의 눈과 귀가 한곳으로 쏠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혼자 건빵을 먹던 동기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하였다.

훈련소의 어떤 병장은 지원대 오면 기름에 튀긴 건빵을 먹을 수 있다며 유혹의 손길을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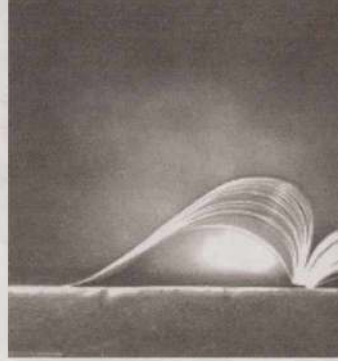
도 하였다. 며칠 지나 운 좋게 얻어 먹던 그 튀긴 건빵의 맛을 아직도 난 잊을 수가 없다.

어렸을 때 일이다. 주말 저녁 입이 심심해 슈퍼를 가게 되면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슈퍼 갈 때 건빵도 한 봉 사오렴.” 난 그 때만 해도 무슨 맛으로 건빵을 먹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심부름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맛있는 건빵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느냐고 여쭙어 보았다. 아버지께서는 피식 웃으면서 군대 갔다 오면 알게 될 거라는 말씀만 하셨다. 그 당시 나는 사 온 건빵 안에 있던 색색의 별사탕만 입으로 집어넣기에 바빴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아버지? 옛날 군대에도 이런 별사탕이 있었나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시기를, “옛날에 이런 별사탕이 어디 있었겠냐? 그저 짝짝한 검은 건빵에도 서로 달려 들기에 바빴지.” 속으로 생각했다. ‘군대에서는 건빵밖에 안 주는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스운 얘기다. 지금도 가끔 훈련소 생각을 하면서, 또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건빵을 먹어 보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다 먹어도 훈련소 때의 건빵맛에는 견주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새 나도 모르게 건빵 한 봉 두 봉이 쌓여 유통기한을 넘겨 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졌다. 이 건빵을 당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훈련병들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제 건빵도 별사탕을 첨가한 좀더 맛있는 것으로 교체된다고 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여러 회사에서 만든 더 맛있는 건빵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건빵이 화려하고 맛있다 한들 군대에서 먹는 건빵만큼 추억과 아련함이 묻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

# Shall we read?

## 나의 독서법(4)



### 꼼꼼히 읽기의 기쁨

#### 제18전투비행단 상병 전종혁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란 문장을 주의 깊게 읽는 경우와 단지 그 소리에만 집착해서 읽을 때 상반되는 두 개의 뜻이 생겨나는 것처럼 독서 역시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같은 책도 많은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오래 전 읽은 수필에서 ‘속독도 좋고, 음독도 좋고 여러 독서방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좋은 것은 정독’이라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독서는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일지언정 작가가 의도하는 뜻을 확실히 알고 또 그걸 넘어 그 작가가 찾아내지 못한 자신만의 것을 찾아낼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국어교과서 속의 시나 소설을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주제 찾고 요약하는 것이 독서라고, 책읽기라고 생각해 독서의 묘미를 못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짧은 에세이나 수필집 같은 부담 없는 글들로 독서를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 전문서적 때려잡기!

#### 제20전투비행단 소위 김세현

전문서적이거나 학술서적을 ‘쉽게’ 읽는 방법으로 다독을 권하고 싶다. 같은 분야의 책을,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읽는 것이다. 시작은 그 분야의 개론에 해당하는 책이 좋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나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속독하길 바란다. 막히는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기는 것이 좋다. 진도가 빨리나가야 질리지 않고 책이 재미있어 지기 때문이다. 읽어 내려간 책의 분량이 묘한 성취감으로 작용해 독서에 활력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막혔던 부분도 책의 전체를 읽고 나면, 혹은 다

른 책의 유사한 내용을 읽는 도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일단 숲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단 책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무슨 원리로 흘러가는지 좀더 쉽게 보이게 된다. 책은 아는 만큼 쉽게, 그리고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비슷한 분야, 비슷한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읽으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 책은 여러 번 읽어야 한다!

#### 제17전투비행단 소령 권도안

책을 읽지 않는 동안에는 어제 읽었던 부분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머리 속에 다시 그려본다. 문자로 된 책의 내용을 머리 속에서 영상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진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책만 보면 졸려서 찢끔찢끔 읽는 사람들의 약점인 ‘앞의 내용이 뭐였더라’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책을 선정할 때 신문 등에 나오는 서평을 참조하는 것보다 직접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지는 것이 좋다. 저자나 역자의 서문을 먼저 읽고 후기(대체로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가 있을 경우 그것도 읽는다. 이 때 추천사는 절대로 읽지 않는다. 서평은 제3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책을 평한 것이지만 서문은 저자의 주관이 들어 있다. 물론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비평자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독서편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때 명심할 것은 자신의 관점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관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그 책을 읽을 것을 권한다. Ⓣ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2.6.1 ~ 2004.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3 2 0 - 9 1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월간 공군

320-913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호) 6231-7, 02) 506-6231-7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로! 퍼즐로! 정답]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로! 퍼즐로! 정답]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  
상품을 드립니다.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  
상품을 드립니다.



# 나의 신병생활기 “파랑새는 있다”

제19전투비행단 일병 배영호

때로는 소나기를 흠뻑 맞아 온몸을 적셔도 좋습니다. 진흙탕에 굴러보는 것도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원하지 않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신병'이라는 기간은 저를 소나기처럼 흠뻑 적시고 뒷걸음쳐 갔습니다. 처음 부대배치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은 낯설었고 하나 하나가 넘어야 하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임병들의 편하게 있으라는 말에도 저의 몸은 깃스라도 한 마냥 뻗뻗하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모든 시선이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끝이 있다고 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단혀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손쓸 수 없는 제 자신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군대니까'라는 말로 적당히 타협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노력도 해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며 타성에 젖어 가는 것은 저의 존재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문처럼 '파랑새는 있다'라는 말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잡히지는 않지만 어디엔가 있을 희망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움츠리고 수동적이었던 제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임병들에게 점점 더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얼마나 알팍한 존재인지 작은 인식의 변화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신병 시절은 잃는 것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 준 스승과도 같은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신병 기간이 다소 고약한 '고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심하게 알아 본 아이가 나온 후 더욱 성숙하듯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졌다면 빨고 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병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도 자신만의 파랑새는 존재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기원합니다. ⚡





### 機内 휴대수하물 엄격 제한

항공안전본부는 여객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대 수하물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1000만~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 수하물에 관한 약정은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에 따라 정한 것으로 휴대 수하물의 허용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 3면의 합이 115cm 이내로, 무게는 10kg 이하로 각각 정해놓고 있다.



### ICAO 기준미달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시설기준에 미달돼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돼 온 울산공항의 착륙대가 확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 ICAO 시설기준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150m의 평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울산공항의 경우 여객 수송실적이 국내 7번째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서편에 위치한 하천 때문에 착륙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공사는 오는 2004년 착공돼 2006년 완공될 예정이다.



### 항공업계, 교육 강화

항공업계가 글로벌 업무능력은 물론 교양수준을 높이는 임직원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등촌동 중앙교육원에서만 실시해오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캠퍼스인 <KALCC>를 구축하고 최근 운영에 들어 갔다. 이 회사는 여객과정·스카이페이스·화물기초 등 모두 3개 과정을 개설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인터넷 교육은 물론 격주 휴무대상 토요일을 '교양문화센터 운영일'로 지정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나갔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술강좌, 사진, 기체조, 붓글씨, 차밍스쿨 등 예체능 및 건강관리 등 자기계발 과정을 중심으로 개설해 나갈 방침이다.



### 항공사고조사위 공식 출범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11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는 항공사고 조사와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의결, 항공사고방지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위는 비상임 위원 6명과 당연직 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공군군악대 정기·순회 연주회**

공군문화를 선도하고 군과 국민간 문화적 가교역할을 해온 공군군악대가 공군 창군 53주년을 기념하여 정기·순회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공군군악대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연주회

- 일시 : 12월 13일(금) 19:00~21:00
- 장소 : 대전 엑스포 아트홀

▶순회 연주회

- 12월 2일(월) 경북 구미 구미문화예술회관
- 12월 3일(화) 경남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 12월 4일(수) 전남 광주 남도문화예술회관
- 12월 6일(금) 충남 천안 천안시민회관
- 12월 9일(월) 경남 울산 울산 KBS홀

문의 : 효)6235, 02)506-6235



**화생방 CBT 홈페이지 개설**

공군본부 화생방과에서는 장병 누구나 화생방 교육 및 평가는 물론, 화생방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화생방 CB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전 특징 및 멀티미디어 자료 ▲인터넷 화생방 관련 최신자료 ▲화생방 용어사전/100문100답 ▲세계의 화생방 장비 ▲개인별 평가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공군본부 인트라넷→정보작전참모부→화생방 CBT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의 : 효)3381



**공군 병 선발제도 개선**

공군은 병 모집 선발방법을 2002년 11월 모집부터 기존 학과시험(필기시험)에서 서류전형으로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며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경력자는 우대 선발합니다. 어학병/군악병은 이전과 동일하게 별도의 전형을 통해 선발됩니다. 개선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군 홈페이지 공군모집→병 메뉴에 게재되어 있으니 공군 병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지원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각 응시지구 모병실



이달의 문제

|    |    |    |    |     |    |      |    |    |    |
|----|----|----|----|-----|----|------|----|----|----|
| 1  |    | ①  |    |     | 2  |      | 3  |    |    |
|    |    |    |    | 4 ② |    |      |    |    |    |
| 5  | 6  |    |    |     |    |      | 7  |    |    |
|    |    |    |    |     | 8  |      |    |    |    |
|    |    | ③  |    |     |    |      |    |    |    |
| 9  |    |    |    |     | 10 | 11   |    | 12 |    |
|    |    |    | 13 | 14  |    |      |    | 15 | 16 |
| 17 |    | 18 |    |     |    |      |    |    |    |
|    |    |    |    |     |    |      | 19 |    |    |
|    | 20 |    |    |     |    | 21 ④ |    |    |    |

▶ 가로열쇠

- 열나면 해열제. 소화가 안되면 ○○○
-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며.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 요즘 한창 인기조. ○○시대
- 당랑권. 피부에 생기는 조그만 혹(?)
- 제비 몰러 나간다~! 흥부의 형
- 백설공주와 일곱○○○. 오스틴 파워의 미니미
- 경주 수화여행 코스. 천문관측기구. 아~ 신리의 달밤이여~
- 대화나 통화내용을 엿들 수 있는 장치
- present. 생일○○, 입학○○, 졸업○○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을 파는 곳
- 붕지에 담으면 밀가리. 붕투에 담으면?
- 앞머리는 만치, 뒤는 못을 뽑는데 쓰는 연장
- 지하에서 물을 뽑아낼 때 쓰는 기계
- 몸에 나는 큰 부스럼. 이명래 고약을 기억하는가

① ② ③ ④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12월 18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열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방공포

|   |   |   |    |  |    |    |   |   |   |
|---|---|---|----|--|----|----|---|---|---|
|   | 대 | 머 | 리  |  | 추  | 수  | 감 | 사 | 절 |
|   | 동 |   |    |  | 풍  |    |   |   | 세 |
|   | 여 |   |    |  | 낙  |    |   |   | 미 |
|   | 지 | 물 | 포③ |  | 엽  | 전  |   | 기 | 인 |
|   | 도 |   | 스  |  |    | ②공 |   | 마 |   |
|   |   | 버 | 터  |  |    | 과  |   | 전 | 기 |
|   |   | 뮤 |    |  | 방① | 목  |   |   | 록 |
| 정 | 검 | 다 | 리  |  | 앗  |    |   |   |   |
| 거 |   |   |    |  | 간  | 이  | 역 |   |   |
| 미 | 역 | 국 |    |  |    |    | 도 |   |   |

▶ 세로열쇠

- 달마대사. 이연걸도 이곳 출신
- 가수. ○○탤런트. 권투 ○○왕전
- 한밤의 대폭발! 형형색색의 불꽃. 하나비
- 던지고, 치고, 달리고. 9전 10기의 명승부
- 매직 캐슬. magic castle. 魔法之城
- 섬이라고? 한때는 쓰레기섬, 지금은 월드컵공원
- 여명. 장만옥 주연의 영화. 등려군의 주제가
- 대형설계도면에 주로 사용됩니다. 혹은 미래의 쪽쪽빵 빵 계획!
- 소금으로 뒹던 시절도 있었지요. 죽염. 딸기맛, 2080, ...
- 옛날 사람들의 주된 연예장소(?).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곡식을 찧는 곳
- 국을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을 일컫는 말
- 산타클로스를 태우고 썰매를 끄는 동물. 코가 빨간 이 유는 사실은 기생충 때문.
- 장이요~ 멍이요~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충북 청원군 남일면 사서함 335-20 병장 최병관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16 병장 박한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사서함 303-7 일병 구영기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383-19 병장 김두한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 주공(아) 배재훈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우전자 1층 안내데스크 문은영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2동 황 준  
 경남 진주시 망경동 목화 노인병원 이한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한양(아) 이태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 2동 오병관

## 제10대 공군참모총장

故 김성룡 장군  
(1926~2002)

지난 11월 9일 별세한 제10대 공군참모총장 김성룡 예비역 대장(향년 76세)은 1926년 경북 영일에서 태어나 1944년 일본 육군비행학교를 수료한 후, 1949년 3월 공군사관후보생 4기로 임관하면서 조국 영공수호의 한 길로 들어섰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작전사령관, 공군사관학교장, 참모차장 등 공군의 주요 보직을 거쳐 제10대 공군참모총장('68. 8.~'70. 7.)을 역임한故 김성룡 장군은 한국전쟁 초반, F-51 무스탕 전투기 인수요원 10명에 포함되어 1950년 7월 2일, 일본 이다즈께 미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몰고 현해탄을 건너와 바로 다음날부터 출격을 개시, 휴전시까지 총 85회를 출격하였으며 공군의 전투지휘임무를 수행,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최고로 고조된 가운데 참모총장에 취임한 고인은, 당시로서는 최신예라 할 수 있는 F-4D(팬텀) 전폭기를 비롯, U-10B 다목적기, C-118 수송기 등을 도입하여 공군의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전참모부와 행정참모부로 단순 구분되어 있던 공군본부의 직제에 다참모기능 개념을 도입, 인사참모부, 작전참모부, 군수참모부의 3개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참모부서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고인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을지무공훈장('51), 미국특수비행십자장('52), 대통령수장('53), 무성충무무공훈장('56), 미공로훈장('61) 등 다수의 훈포상을 수여받았으며, 지난 2000년 3월부터는 공군 참전군인회장으로 재임해왔다.Ⓢ

